
主要 先進國의
國民所得 2만불 達成 戰略 및 示唆点

2003. 8.

K O T R A

目 次

I. 調查 概要	1
----------------	---

II. 調查 結果	3
-----------------	---

1. 總 論 / 3

2. 國民所得 2만불 達成을 위한 7大 分野 벤치마킹/5

3. 示唆点 / 17

添附：國別 國民所得 2만불 達成戰略

I. 調査 概要

□ 조사 배경

- 정부는 2010년까지 국민소득 2만불 실현을 정책과제로 제시
 - 이를 위해 기술혁신, 시장개혁, 노사문화혁신,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지방화 등 5개 성장 전략 제시
-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수출증가율, 환율 등의 요인에 의해 좌우되며 동 거시경제지표 운영을 통한 국민소득 2만불 달성전략 채택
 - 2010년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5.1%의 성장 달성 필요(한국개발연구원)
 - 2010년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위해서는 매년 11%의 수출증가 필요 (무협)
- 이러한 예측 모델은 2만불 달성을 위한 전략적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이지만, 가정을 전제로 한 연구결과의 한계로 인해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평가

□ 조사 대상국가

- 국민소득 1만불대의 함정을 극복하고 2만불 시대에 진입한 국가중 석유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수출·투자 등과 같은 분야를 통해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한 19개국을 선정, 동 국가들이 달성 기간중 역점을 둔 정책분야 벤치마킹

- 북 미 : 미국, 캐나다
- 아시아·대양주 : 일본, 호주, 싱가포르, 홍콩,
- 유 럽 : 프랑스,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 조사대상국가의 1만불→2만불 소득 달성기간

인구 1천만명 이상			인구 1천만명 이하		
국 명	1인당 GDP 변화	소요기간	국 명	1인당 GDP 변화	소요기간
일본	10,071('81) → 20,179('87)	6년	스위스	13,776('78) → 21,251('86)	8년
미국	10,317('78) → 20,853('88)	10년	덴마크	11,308('78) → 20,400('87)	9년
캐나다	10,988('80) → 20,405('89)	9년	룩셈부르크	12,291('78) → 21,092('88)	10년
프랑스	11,185('79) → 20,970('90)	11년	핀란드	10,958('80) → 21,514('88)	8년
독일	12,574('79) → 24,458('90)	11년	노르웨이	10,083('77) → 21,801('87)	10년
이태리	10,712('86) → 20,527('91)	5년	스웨덴	10,361('77) → 22,297('88)	11년
네덜란드	10,418('78) → 20,118('91)	13년	오스트리아	10,626('80) → 21,001('90)	10년
벨기에	11,381('79) → 20,492('91)	12년	싱가포르	10,180('89) → 20,764('94)	5년
영국	12,097('87) → 20,497('96)	9년	홍콩	10,328('88) → 21,775('94)	6년
호주	10,661('80) → 22,148('96)	16년	아일랜드	10,448('88) → 20,192('96)	8년
	평 균	10.2년		평 균	8.5년

자료원: 무역협회

주) 상기 대상국중 룩셈부르크는 조사여건 불리로 조사대상에서 제외

□ 중점 조사 분야

- 기간중 대상국가의 거시경제 지표 추이 등
-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에서 2만불 달성기간중 해당국가의 정부전략 및 정책변화
- 2만불 달성을 위한 주재국 기업의 전략
-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II. 調査 結果

1. 總 論

가. 조사대상 국가의 2만불 소득 달성기간중 경제동향

- 조사 대상 19개국의 평균 1만불 → 2만불 소득 달성 기간은 9.5년간 이 소요되었으며, 최단기간 달성국은 이태리(5년)이고 최장기간 소요국은 호주(16년)로 나타남
- 이들 국의 해당 기간중 평균 경제성장률은 3.6%이었으며,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국가는 이태리(9.9%), 싱가포르(8.6%), 아일랜드, 홍콩 (각각 5.5%) 순 이었음

구 분	달성기간	경제성장	수출증가	물가상승	환율상승
덴마크	10	1.7	12.1	7.9	24.1
스웨덴	12	2.0	3.2	8.6	46.5
싱가포르	6	8.6	11.1	2.8	-19.4
오스트리아	11	4.1	8.8	6.4	-15.2
핀란드	8	2.0	6.7	7.4	12.1
일 본	6	3.5	8.8	2.1	-34.4
네덜란드	13	2.1	4.5	2.5	10.8
벨기에	12	2.0	9.0	4.6	16.5
아일랜드	8	5.5	12.1	2.7	4.5
스위스	8	2.1	8.4	3.8	1.1
프랑스	11	2.4	4.8	7.3	28.0
미 국	10	3.2	10.4	6.3	0
영 국	9	2.4	8.8	4.6	6.4
홍 콩	6	5.5	18.2	9.6	-1.0
이태리	5	9.9	14.7	5.8	16.7
노르웨이	10	3.5	14.5	6.6	26.5
독 일	11	2.3	12.5	3.0	-11.8
캐나다	9	3.0	8.7	6.5	-1.1
호 주	16	3.6	7.2	8.5	-35.1
평 균	9.5	3.6	9.7	5.6	4.0

- 조사대상국의 2만불 소득 달성기간중 평균 수출증가율은 9.7%이었음
 - 특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국가는 홍콩(18.2%), 이태리(14.7%), 노르웨이(14.5%), 독일(12.5%), 덴마크, 아일랜드(각각 12.1%) 순이었음
- 조사대상국의 1만불 → 2만불 달성기간중 물가상승률은 평균 5.6%로 비교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본, 네덜란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은 2%대의 인플레이션을 보여 물가안정에도 성공했던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주목되는 점은 아일랜드의 경우 경제성장, 수출증가율, 물가안정세 박자를 고루 갖춘 이상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음
- 기간중 대상국의 환율 변동을 보면, 평균 4.0%의 대미 달러환율 상승세를 보였음
 - 스웨덴(46.5%), 프랑스(28.0%), 노르웨이(26.5%), 덴마크(24.1%) 등은 20% 이상의 높은 환율 상승세를 보여 평가절하로 2만불 소득 달성시기가 다소 지연된 반면,
 - 호주(-35.1%), 일본(-34.4%), 싱가포르(-19.4%),오스트리아(-15.2%) 등은 높은 평가절상 압력을 받아 2만불 소득 달성에도 평가절상 덕을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2. 國民所得 2만불 達成을 위한 7大 分野 벤치마킹

1) 안정적인 노사관계

아일랜드

- '87년 勞使政 합의하에 사회연대협약을 체결하고 평화적인 노사관계 구축
 - 협약을 통해 노측은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정부는 소득세를 인하하고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
 - 사회연대협약은 매 3년마다 갱신되며 현재까지 유지

핀란드

- '80~'90년대 초까지의 심각한 경제위기 당시 핀란드의 노사정은 3년간 임금동결을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
- 실업률 급상승과 기업부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건실한 복지국가로서 실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한데 기인
- 이로 인해,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사회안정 및 노사간의 신뢰 구축 성공

덴마크

○ 강력한 노동정책의 시행

- '70년대 덴마크는 기업 및 노동조합간 수많은 쟁의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근로시간 손실 초래
- '82년 보수연정이 집권하면서 다수의 쟁의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노사분규 타결
- 조정노력에서 실패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법률을 도입하는 방안을 통해서 노사분규의 타결을 강제
- 이로 인해, 노사분규 당사자는 협상시 어떻게든 타결 안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어 노사안정화에 기여

네덜란드

○ Polder Model의 노사정 협력체제

- 네덜란드는 노사정 협력을 통해 '80년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만불 시대를 열게된 네덜란드식 발전모델로 “Polder Model” 채택

○ Wassenaar 협약 ('82. 11. 24)을 통한 노사협력 체제구축

- 임금의 물가연동제 폐지로 고비용 구조 타파
- 노동시간 단축 (주 40시간에서 33시간으로)
- Part Time제 도입 및 집단 임금협약체제 구축

○ SER(사회경제위원회)의 위상 강화

- 1950년대 창설된 노사정 협력위원회
- 노동조합, 고용주, 사회 경제 전문가 등 33명으로 구성
- 10개 분과에서 합의사항 이행점검 및 노사공동 협력사업발굴

○ Collective Labour Agreement

- 노사정 대표간 차년도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교육 및 훈련, 고용조건 개선 등에 관한 협정
- 단위 사업장은 당해 연도 경영실적과 동 협정에 준하여 자율적인 임금교섭 실시

○ 임금인상의 물가연동제 폐지로 임금의 유연성 확보

○ Part Time제 도입으로 고용창출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벨기에

○ 노·사·정간 합의에 따라 10년간 급여인상 사실상 동결

- '60년대부터 만들어져 노사문제를 협의해온 노사협의회(Concertation Sociale)는 인플레이와 기업경쟁력 악화를 막기 위해 '85-'94년 10년동안 임금인상폭을 물가인상률 범위 내로 한정하기로 합의

오스트리아

- '80년대 오스트리아 노동계의 가장 큰 변화는 '70년대를 통해 제도권 정치에 익숙해진 노동계에서 경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용자측과 타협 추구

- 단순히 임금인상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여 노사관계를 정립
- 오스트리아 노총과 함께 사회동반자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회의소는 경제분석 및 전망, 임금 인상수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노사가 타협하는데 크게 공헌

일 본

- '80년대 들어서도 기업은 기본적으로 장기 고용을 유지하고, 해고를 하는 대신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방향에서 시간외 근무시간(잔업 시간)의 단축이라는 노동시간 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배치전환, 파견, 일시휴가 등으로 고용조정을 실시
- 일본의 노동조합은 고용을 보장받는 대신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를 억제
 - 춘투에 의한 임금인상률이 저하되고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상승의 곡선을 완만하게 하는데 동의, 이는 노사 합의에 입각한 일본식 소득 정책으로 명명
- 노동생산성 증가율 범위 내에서 임금인상률이 책정됨으로써 인플레이션 상황하의 임금 코스트 압박요인 제거
- 이 같은 노사관계가 구축됨으로써 '79년-'80년의 제2차 석유위기를 비교적 큰 혼란 없이 극복

2) 틈새시장을 통한 돌파구 마련

스위스

- '70년대 일본산 카메라의 경쟁력 강화로 스위스 카메라 업체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고급 측량 기기 생산과 같은 틈새시장 개척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
- '70년대 일본산 저가 시계의 출현으로 스위스 해당업체들이 위기에 직면했으나, 뛰어난 디자인 및 저가정책을 무기로 한 Swatch 브랜드의 출현을 계기로 경쟁력을 회복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 기업들은 '80년대 들어 일반 산업제품 생산을 지양하고 특화산업에 전력투구하거나 틈새시장 개척 적극 추진
 - 시장개방이 '90년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폐쇄적 국내시장 운용이 이들 기업들의 성장기반 제공
- 이러한 전략을 추진한 결과, 오스트리아 기업 중에는 세계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다수의 중견기업들이 육성되어 수출부문의 중추 역할 수행

3) 지식집약형 · 고부가가치 · IT 산업 육성

핀란드

- 정부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활동 지원
 - '89년 이후 핀란드 기술청(TEKES)를 통해 지속적으로 매년 5-7%씩 R&D 지원 예산 증액
- 산 · 학 · 연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 대학과 15개 지역연구센터를 운영하면서 연구 프로젝트의 90%가 지역연구센터에서 이루어짐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정책
 - 교육부 · 교통통신부 · 상공부 등 관련부처간 유기적인 교육 정책 수행
 - 최근 10년간 IT 및 미디어 관련 학생수가 4배로 증가

스위스

- 부존자원 빈약 한계를 은행업 및 고부가 산업으로 극복
 - 1934년에 제정된 은행비밀보호법을 기반으로 2차대전 이후 유럽의 유일한 국제금융센터로서 역할을 수행,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

- 풍부한 자본투자를 바탕으로 화학·기계·제약 등 막대한 연구 개발비가 투입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국민소득 1만불 달성이후, 수출에서 하이테크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 40%대 유지

싱가포르

○ 기술 집약적 산업의 육성

- '91년 10월 '전략적 경제계획(Strategic Economy Plan)'을 발표. '90년대 산업정책을 기술 집약적 산업의 육성과 서비스 부문의 발전에 두고, 국제적 비즈니스센터로서 싱가포르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경제발전의 양축으로 설정하여 산업발전을 주도할 전자, 석유화학, 엔지니어링 등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집단의 일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클러스터 개발전략(Cluster Development Strategy)을 도입하여 제조업 부문의 종합적 발전계획 추진

독 일

○ 지속적인 기술혁신 노력

- 독일산업의 최대 경쟁력은 높은 기술력임을 인식하고 지역 및 기업 단위로 꾸준한 R&D 투자
 - 산학연 연계 네트워크 조직
 - 교육기회 확대를 통해 인력활용 극대화

4)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벨기에

- 세제 인센티브를 통한 외국인투자기업 유럽본사 유치전략
 -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82년 벨지움 정부는 벨지움에 유럽 본사(일명 Centre de Coordination이라고 부르며, 기획·관리·마케팅전략수립 등 해당기업의 두뇌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를 의미함)를 설립한 기업에게 특별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실시
- ☞ 동 제도는 각종 무역 및 투자제도 중 벨지움의 국제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 이에 따라,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벨지움에 Centre de Coordination을 설립하기 시작해, 2003년 현재 220개의 Centre de coordination 가 벨기에에 소재

영국

- 저렴한 노동비용, 유연한 노동시장, 규제완화,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으로 영국의 유럽의 제1위 투자유치국으로서 외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에 성공
- 강한 노조로 영국 진출을 꺼렸던 외국기업들이 노사관계 안정화 이후 진출 가속화
- 영국의 2만불 시대 진입에 전환점이 되었던 대처리즘은 현재까지 영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기조로 '97년 집권한 블레어 노동당 정부도 동 정책기조를 기본적으로 계승

아일랜드

- 고용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추진
 - '81년부터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10% 특혜 법인세 부과
 - '82년부터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 '94년에 국내기업지원과 외국기업 투자유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던 IDA(Industrial Development Agency)를 세계의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시키고, IDA가 외국투자유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
- 아일랜드는 전통적으로 목축업이 발달한 국가였으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통하여 대규모 제조산업 발전 시작
- 외국투자기업 유치를 통하여 집중 발전시킨 산업은 전자, 화학 및 의약, 금융, 서비스산업

5) 공격적인 해외투자

덴마크

- 국내의 임금상승 압박을 타개하기 위해 덴마크 기업들은 노동집약 생산시설을 남부 유럽과 동유럽으로 이전
-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경영관리, 연구개발, 판매, 마케팅, 구매업무 등이 수행되면서 덴마크내 다수 일자리 창출

- 덴마크 기업들은 고도 전문기술을 지키려는 노력은 매우 높으나 단순생산은 생산비용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음
- 기업들이 국내 고 임금의 일자리를 유지할 있었던 주 요인은 신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에 기인

독 일

-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과감하게 포기
 - 섬유, 신발, 단순 기계 조립 등 높아지는 독일의 인건비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은 중동구 유럽이나 남미, 아시아 등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여 이윤의 효율성 추구
- 하이테크 기술을 요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은 독일 국내 생산을 원칙으로 엄격한 품질 관리
 - 고급 승용차, 정밀기계, 고기능 섬유 등은 독일 내 생산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Made in Germany"의 가치 고양

6) 사회의식 구조의 변화

아일랜드

- '80년대 중반 국가파산위기까지 몰렸던 상황을 극복하고, 외국투자 유치로 통한 고도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었기 때문

- 정치권의 여야는 물론 사회단체·사용자·노동자 등 각계층이 자신들의 주장을 양보하고 사회연대협약을 이룩함으로써, 외국투자기업들이 안심하고 아일랜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스위스

- 외국 노동인력의 적절한 활용
 - 스위스의 국민소득 2만불 달성기간은 인력부족이 심각했던 시기로 스위스 정부 및 국민은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을 떨치고 '87년도 기준 총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외국인 노동력 활용

덴마크

- 여성의 근로기회 확대
 - 기존 남성인력의 생산성 향상만으로는 전체 인구의 1인당 GDP의 증가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여성 취업을 권장하여 여성의 취업률이 75%에 달함으로써 국민소득 창출에 기여

프랑스

- 사회 개념의 실리 중심 전환
 - 전통적인 사회통념 속에서 이루어졌던 경제활동을 미국식으로 전환하여 실질성과 이익에 근거한 기업활동 추구
 - 외국인 투자업체에 부여하는 인센티브 등도 기존 제도의 적용보다는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고용효과나 실익 중심의 정책적 판단을 적용

7) 적절한 기업 정책

독일

○ 중소기업의 전문화

- 독일은 건실한 중소기업이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적인 중소기업 강국
 - 이들 중소기업은 가족기업이 대부분이며, 대개 2-3대에 걸쳐 특정분야를 전문화
 - 기술경쟁력, 마케팅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전문가 중소기업이 다수

스웨덴

○ 선도기업 육성

- 대기업 중심의 전략산업 발굴과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 '70년대 후반까지 호황을 누리던 조선 등 대규모 장치산업을 매각하는 대신 자동차, 정보통신, 제약산업 등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투자와 성장지원 정책을 수행
- 스웨덴 정부가 국가 핵심산업으로 선정한 분야는 단순히 수출시장 성장 잠재력이 클 뿐 아니라 이미 자국 유력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 군으로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

3. 示唆点

- 조사 대상 국별로 처한 환경에 따라 각국이 취한 정책은 다소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만불 달성기간중 주요국들이 취한 정책은 크게 상이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자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적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벤치마킹의 모델로 삼는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

☞ 노사분야

- 조사 대상국가의 상당수는 노사정 합의를 통한 노사화합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생산성 제고에 역점
- 각국은 노사정 합의 및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 수준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노동시장의 안정화에 최대한 기여

☞ 틈새시장 개척

- 국민소득 1만불 달성 후 경쟁에 직면하여 국민소득 1만불 함정에 빠질 위기에 처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상의 전환을 통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만든 사례가 존재
- 특히, 스위스의 틈새시장 공략사례는 존 나이스 빛과 같은 미래학자도 인용하는 매우 중요한 사례로 시사하는 바가 큼

☞ 지식집약형 · 고부가가치 · IT 산업등 선도산업 육성 관건

- 국민소득이 1만불에서 2만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과 상품에 안주하는 방식으로서는 도달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지식집약형 · 고부가가치 · IT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선 국가들이 다수
- 일부 국가는 기존의 제조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타 국가는 서비스산업으로 산업방향을 신규로 설정하는 등 각국이 처한 상황과 시대 상황을 적절히 조합하여 국민소득 2만불 달성에 나선 것으로 평가

☞ 외국인 투자유치

- 조사 대상국중 영국 · 아일랜드 · 벨기에 · 프랑스 등은 과감한 외국인 투자관련 제도와 조직 정비, 세제혜택정책 등과 같은 투자 유치정책을 통해 자국 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창출을 가져와 2만불 시대 진입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 투자유치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추가적인 벤치마킹 필요

☞ 공격적인 해외투자

- 외국자본 및 기술의 국내유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권장할 만 것으로 조사
- 조사 국가중 덴마크와 독일은 공격적인 해외투자로 국내 임금압박을 완화하고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기업정책의 추진을 통해 2만불 소득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
- 그러나, 이들 국가의 기업들은 高 임금과 고부가가치 기술부분은 자국내 투자를 확대해 고급 일자리는 국내에 유지하려는 노력 경주

☞ 국민 공감대 기반 사회의식 구조의 변화

- 사회의식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국민소득 2만불시대 진입에 필수적 조건
- 외국 노동력에 대한 거부감 해소, 여성인력의 적절한 활용을 통한 노동력 및 노동 생산성 제고, 국가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 연대의식의 고취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 필요

☞ 적절한 기업육성정책 필요

- 각종 규제완화 정책과 함께 중소기업의 집중육성과 선도적 대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의 기본구조를 정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업 체제를 통한 경쟁력 제고 노력이 선결과제로 판단

네덜란드

1. 주재국의 국민소득 2만불 달성에 주요 역할 분야

○ 무역 부문

- 네덜란드는 전형적인 중계 무역국가로 수입물량의 40% 이상이 인근 유럽국가들로 재수출됨

2. 1만불에서 2만불 진입 기간('78-'91)중 경제 여건

□ 경제 성장

- '80년대 극심한 경기침체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극복, 80년대 후반 부터 유럽 최고의 경제성장을 지속

구 분	GDP(백만 유로)	GDP 성장률(%)
1978	135,934	1.9
1979	144,665	2.4
1980	154,440	1.3
1981	161,696	-0.5
1982	168,765	-1.1
1983	175,599	1.9
1984	183,364	3.0
1985	193,083	3.5
1986	198,383	2.5
1987	209,339	1.4
1988	216,975	2.7
1989	230,687	5.1
1990	241,486	2.4
1991	255,501	2.9

□ 수 출

- 1만 불에서 2만 불시대로 접어드는 시기에 수출이 2.3배 이상 증가

구 분	수출액(백만유로)	수출증가율(%)
1978	59,826	3.3
1979	69,537	7.4
1980	79,230	2.2
1981	91,972	1.9
1982	94,559	-0.9
1983	97,418	3.2
1984	110,128	7.5
1985	117,407	5.1
1986	100,717	1.8
1987	102,939	4.0
1988	112,288	8.9
1989	126,061	7.9
1990	131,363	5.0
1991	138,831	5.6

□ 노동인구 및 노동비용

- '80년대 초반 10%를 상회하던 실업률이 Wassenaar협약('82년)이후 5%대로 감소 : 폴더모델 정립 영향
- 노동참여율도 '78년 46%에서 '91년 52%로 증가
 -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크게 증가

구분	인구(천명)	노동인구(천명)	실업률(%)	1인당 인건비(EUR)	총 인건비(백만EUR)
1978	13,898	6,393	4.1	12,752	81,522
1979	13,986	6,433	3.9	13,631	87,691
1980	14,091	6,764	4.3	13,788	93,255
1981	14,209	6,820	6.1	13,965	95,241
1982	14,286	6,857	9.0	14,304	98,086
1983	14,340	6,883	11.7	14,420	99,255
1984	14,395	6,765	11.2	14,748	99,774
1985	14,454	6,793	9.7	15,199	103,253
1986	14,529	6,974	8.6	15,469	107,882
1987	14,615	7,308	7.9	15,265	111,550
1988	14,715	7,357	7.7	15,577	114,608
1989	14,805	7,403	6.9	15,957	118,126
1990	14,893	7,595	5.9	16,525	125,512
1991	15,010	7,805	5.4	17,074	133,268

□ 환율 및 물가상승률

	환율 (Euro-US\$)	물가상승률
1978	2,16 (HFL-US\$)	4.3
1979	2,01(HFL-US\$)	4.5
1980	1.39	7.0
1981	1.12	6.8
1982	0.98	6.0
1983	0.89	2.7
1984	0.79	3.2
1985	0.76	2.3
1986	0.98	0.3
1987	1.15	-0.2
1988	1.18	0.9
1989	1.10	1.0
1990	1.27	2.6
1991	1.24	4.0

3. 1만불에서 2만불 달성기간 중 주재국 정부 전략사례

Polder Model : 勞使政 대타협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사례

□ 배경 및 의의

- 네덜란드 노사정의 협력에 통해 '80년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만불 시대를 열게된 네덜란드식 발전모델이 “Polder Model”로 지칭되고 있음
- “Polder”란 네덜란드어로 “간척지”라는 의미로 국토의 1/3을 간척사업으로 일구어 낸 네덜란드인의 불굴의 의지를 비유하여 이를 Polder Model로 지칭

□ Polder Model의 노사정 협력체제

- Wassenaar 협약 ('82. 11. 24)을 통한 노사협력 체제구축
 - 당시 노동계 대표는 前 수상인 Kok 수상
 - 임금의 물가연동제 폐지로 고비용 구조 타파
 - 노동시간 단축 (주 40시간에서 33시간으로)
 - Part Time제 도입 및 집단 임금협약체제 구축

○ SER(사회경제위원회)의 위상 강화

- 1950년대 창설된 노사정 협력위원회
- 노동조합, 고용주, 사회 경제 전문가 등 33명으로 구성
- 10개 분과에서 합의사항 이행점검 및 노사공동의 협력사업 발굴

○ Collective Labour Agreement

- 노사정 대표간 차년도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교육 및 훈련, 고용조건 개선 등에 관한 협정
- 단위 사업장은 당해 연도 경영실적과 동 협정에 준하여 자율적인 임금교섭 실시

□ 주요 효과

○ 임금인상의 물가연동제 폐지로 임금의 유연성 확보

○ Part Time제 도입으로 고용창출 효과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 Part Time 근로자는 휴가, 교육, 승진 등에서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
- Part Time 근로자 비율
 - 남성 : '83년 4% -> '98년 16% / 여성 : '83년 20% -> '98년 38%

4. 2만불 달성을 위한 주재국 기업의 기업 전략 사례 : Philips

□ 2만불 달성 시기의 필립스사의 여건('78년 - '91년)

○ '70년대 들어서면서 네덜란드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유럽 가전 시장에서 아시아 전자제품과의 경쟁이 격화됨

- 더욱이 80년대초 달러-엔 환율이 급변하면서 아시아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 또한 기술발전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R&D 투자의 필요성 증대

□ 대 응

○ 대대적인 구조조정

-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장의 해외이전, 불요불급한 사업부문 매각 등을 통해 구조조정
- 고부가 품목인 필립스 면도기 부문 및 필립스 전구 등 일부를 제외한 전자, 전기 부문을 모두 해외 이전
- 70년대 40만 명을 상회하던 종업원 수가 1990년 65천명으로 감소
- 90년대 초까지 40%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됨

○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인수 합병

- 치열한 구조조정 중에도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부문을 인수하여 핵심역량 강화
- '81년 TV부문의 GTE Sylvania사, '83년 전구부문의 Westinghouse사 인수

노르웨이

1. 노르웨이의 국민소득 2만불 달성에 주요 역할을 한 분야

- 1969년 유전발견과 지속적인 원유·가스 수출로 2만불 시대 진입
- 노르웨이는 인구가 4백 50만명에 불과하나, 국가 면적은 한반도의 2.7배에 달함.
 - 노르웨이는 세계 3대 석유수출국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4천불인 세계 최고의 부국
 - 노르웨이는 석유·가스 자원을 최대한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고 이익금을 석유기금으로 운영
 - * 석유기금 총액: 1995년(20억 NOK) 2002년 (6,036억 NOK)
 - 석유기금을 분산 투자하여 안정적인 부의 증대를 얻고, 석유기금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복지부문에 지출

2. 1만불에서 2만불 진입 기간중 경제 여건

가. 거시경제지표

- 노르웨이 통계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진입 시기인 1985년을 기준으로 작성
 - 소비자물가지수는 1985년을 100으로 기준
 - 평균임금, 수출, 원유·가스 수출은 백만 NOK

노르웨이의 주요경제지표

구 분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대미환율	5.33	5.25	5.08	4.95	5.75	6.45	7.3	8.16	8.6	7.4	6.74
실업율 %	1.1	1.3	1.5	1.3	1.7	2.4	3.8	3.2	2.5	1.8	1.5
안구밀도 (km2 당)	10.47	10.5	10.55	10.59	10.6	10.7	10.7	10.7	10.7	10.79	10.8
물가지수	51.7	55.8	58.5	64.9	73.8	82.1	89	94.6	100	107.2	116.5
경제성장률	4.3	3.5	4.5	4.9	1.0	0.2	3.6	5.9	5.2	3.6	2.1
평균임금	-	-	-	103,956	113,580	127,956	137,448	145,800	158,016	177,036	185,388
수출	47,262	57,084	68,527	91,627	104,265	113,236	131,397	154,035	170,733	133,847	144,543
원유 · 가스수출	8,711	13,598	21,993	41,399	48,087	53,427	63,844	78,329	85,380	53,077	53,620

자료원: 노르웨이 통계청

3. 1만불에서 2만불 달성기간 중 주재국 정부 전략사례

가. 개요

- 노르웨이는 입헌군주국으로 내각책임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제도적 관행상 영국과 유사한 정치체제
- 2차대전후 국내정치의 주안점은 경제정책이었고, 사회주의계열과 비사회주의계간에 사유재산권의 범위 · 공업화 · 도시화가 정부의 주요 정쟁
- 특히, 1960년대에는 북해에서 노르웨이의 경제성장 원동력인 원유와 가스가 발견됨에 따라 개발에 대한 국가 역할문제 큰 논란거리
 - 세금, 사회보장문제, 북해 유전문제 등 경제문제 외에 교육문제, 노인복지, 의료개혁, 임신중절문제, 환경안보문제에 관련된 對 나토정책, EU 가입문제 등도 오랜 정치 쟁점

나. 국민소득 2만불 진입 시기의 국내정세

- 1981 .9. 13 총선거에서 1945년 아래 장기집권(1963-73기간 제외) 해온 노동당이 실각하고, Kaare Willoch의 보수당 단독소수 정부가 성립
 - 기민당, 중앙당의 협조를 받아 안정적으로 정국 주도
- 1981년 총선직후부터 연정구성이 거론된 바 있으나, 정책이견으로 성립되어 오지 못하다가 1983.6 Willoch 보수당수를 총리로 하는 보수당·기민당·중앙당 연정이 구성, 총의석 155석중 79석을 확보, 안정세력을 구축
- 1985. 9월 실시된 총선거에서 Willoch총리가 이끄는 중도우익 연합이 사회주의계 야당의 강한 도전을 물리치고 재집권
 - 이는 집권 4년 동안 국제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진정, 실업률 감소, 공공지출 감축 등 성공적 경제 치적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남성 및 청소년 층을 기반으로 한 보수계 정당의 인기가 꾸준히 유지된 데 기인
- 중도우파 정부는 1986년초 유가급락에 따른 세수보전을 위해 유류 등 소비성 물품에 대한 세율인상과 각종 보조금 감축 등 예산지출 삭감안을 의회에 제출
 - 정부안이 79:78로 부결됨에 따라 Brundtland를 총리로 하는 노동당 소수 내각이 발족
- 노동당 정부는 경제회복책으로 소비억제, 긴축 재정정책 추구, 크로나 평가절하 조치 등 세부시책을 마련

4. 2만불 달성을 위한 주재국 기업의 기업 전략 사례

- 노르웨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석유수출이며,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하는 국영석유회사 Statoil, Norsk Hydro 등 2개사의 원유 수출로 노르웨이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이끌었음
- 또한 Kvaerner Oil & Gas, Aker Maritime, ABB Oil과 Gas & Petro-chemicals와 같은 종합 서비스 기술업체들은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정에 건설된 유전 설비 건설의 실행가능성 조사에서부터 설계, 설치 및 유지에 이르는 총체적 유전 개발을 주도

5.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Troll(트롤) 천연가스 개발기지는 중력중심으로 설계된 해상구조물의 대담성과 복잡성으로 기술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노르웨이의 해양 설비 업계와 납품 업체들의 세계시장 규모 확대에 기여
- 노르웨이의 기술과 전문지식은 해양설비업의 전망과 유망한 곳이라면 세계 어느 곳이라도 진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험정신과 탐험정신의 소산으로 구가성장을 주도

덴마크

1. 덴마크의 국민소득 2만불 달성에 주요 역할을 한 분야

- EU 역내교역 증가, 건전 재정, 유전발견, 국제경영 및 신기술 개발 노력에 의한 목표 달성

2. 1만불에서 2만불 진입기간 중 주재국 경제여건

가. 거시경제지표

구 분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성장률	2.03	1.63	-2.70	-2.87	2.43	3.13	3.74	4.34	4.74	0.38
수출성장률	7.50	18.01	20.86	22.28	13.33	10.40	11.44	8.82	5.07	2.90
물가상승률	10.0	9.6	12.3	11.7	10.1	6.9	6.3	4.7	3.7	4.0
환율	5.5125	5.2578	5.6292	7.1298	8.3500	9.1615	10.3607	10.5861	8.0846	6.8436
인구밀도 (명/Km ²)	118.27	118.61	118.86	118.90	118.79	118.73	118.63	118.60	118.72	118.92
무역의존도	0.271	0.288	0.322	0.360	0.357	0.358	0.363	0.364	0.319	0.312
평균임금 상승률	8.72	11.45	8.79	10.81	11.07	5.38	6.08	5.80	6.29	6.80
실업률	7.3	6.1	7.0	9.2	9.8	10.5	10.1	9.1	8.0	8.0
여성취업률	57.8	60.9	70.9	71.5	72.4	72.7	73.8	74.9	75.7	76.3

주1) GDP성장률은 덴마크 크로나화 1980년 불변가격 기준

주2) 여성취업률은 16-66세의 여성인구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3. 1만불에서 2만불 달성기간 중 영국 정부 전략 및 정책변화

가. 경제정책

- 세계개혁의 단행 및 환율의 안정
 - 덴마크는 1978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을 상회한 이후 막대한 규모의 재정위기를 겪게 되자 당시의 우익연정은 기본정책을 변경하여 차입에 의한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을 중단하였음

- 또한, 대폭적인 세제개혁을 단행, 연금과 저축에 대한 세금감면을 확대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제고시켰으며, 이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일부 지속되고 있음
- 덴마크 크로나화를 1982년 독일 마르크화에 연동시켜 환율변동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였음

나. 산업정책

- 덴마크의 풍부한 여성 노동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정부부문의 확대를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다. 산업 및 수출구조의 변화

- 북해유전 발굴
 - '70년대 후반 북해유전이 발견되어, 매년 채굴량이 증가함으로써, '70년대 94%의 석유를 수입에 의존했던 덴마크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20년후에는 석유수출국으로 변모함으로써 무역수지 개선에 큰 기여를 하였음
- 대체에너지 사용확대
 - 덴마크 정부는 전력회사로 하여금 풍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일부를 고가로 구입하여 주도록 의무화하여 신 대체에너지산업의 등장이 가능케 하였으며, 석유수입을 대체토록 하여 덴마크의 무역수지를 개선하였음
 - '80년대 초반 풍력발전을 도입하기 시작하여, 2002년 현재 덴마크내 6천기 이상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전체 전력수요의 약 12%를 충당하고 있음

- 산업간 노동력 이동

- '80년대 초반 등장한 덴마크 풍력발전기 생산 3사는 덴마크 조선소가 경쟁력을 잃으면서 발생한 조선소 근로자의 유희 노동력을 흡수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여 산업간 노동력 이동을 원활하게 했음

라.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의 변화

- 강력한 노동정책의 시행

- '70년대에 덴마크 기업 및 노동조합간 수많은 쟁의가 있었으며, 이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이 막대하였음
- '82년 덴마크 보수연정이 집권하면서 다수의 쟁의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타결시켰음
- 조정노력에서 실패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법률을 도입하는 방안을 통해서 노사분규의 타결을 강제하였음
- 이로 인해 노사분규 당사자는 협상에 있어 언제나 타결 안을 도출하려 노력을 하게 되어 노사안정화에 기여했음

4. 2만불 달성을 위한 덴마크 기업의 전략

가. 대외무역 확대 및 경쟁력 제고

- '79-87년 기간중 덴마크의 주요기업은 중소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여타 EU회원국과의 교역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비할 수 있는 조직을 정비했음

나. 노동집약적 산업의 해외이전

- 국내의 임금상승 압박을 타개하기 위해 덴마크 기업들은 노동집약 생산시설을 남부유럽과 동유럽으로 이전해 갔음

-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불구, 국내에서 경영관리, 연구개발, 판매, 마케팅, 구매업무 등이 수행되면서 덴마크내에 다수 일자리가 창출되었음
- 덴마크 기업들은 직업의 전문지식을 지키려는 노력은 매우 높으나 단순생산은 생산비용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음

다. 신기술 연구개발

- 기업들이 국내 고임금의 일자리를 유지할 있었던 주요인은 신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에 의한 것임

5. 우리 나라에 대한 시사점

가. 에너지 대체산업 개발

- 한국내 풍력발전, 연료전지(Fuel cell)등의 신 대체에너지 연구를 통해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감소시키는 노력 필요
 - 한국도 석유수입이 '70-80년대 덴마크와 같이 전체 수입중 높은 비중을 차지. 덴마크는 풍력발전의 도입 및 유전발굴로 이를 극복

나. 여성의 근로기회 확대

- 기존의 남성인력의 생산성 향상만으로는 전체 인구의 1인당 GDP의 증가에 한계가 있음. 덴마크의 경우 여성의 취업률이 75%에 달함으로써 국민소득의 창출에 기여함

다. 지역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무역확대

- 덴마크는 소규모 경제이나 EU의 자유무역시스템으로부터 막대한 효익을 얻고 있음. 자유무역지대의 경우 자동적으로 무역 및 경제활동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
- 한국의 경우 덴마크 및 EU와는 여건이 매우 다르겠으나 인근국가와의 무역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경제협력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 필요

독 일

1. 독일의 국민소득 2만불 달성에 주요 역할을 한 분야

- 독일이 국민소득 2만불에 진입하던 80년대는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대외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시기로 무역과 투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목표를 달성

2. 1만불에서 2만불 달성기간 중 독일 정부 전략 및 정책변화

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기업 및 개인 경제활동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율 인하
 - 기업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 인하
 - 민간투자 및 민간소비 촉진
- 기업, 은행, 공공시설의 민영화
 - 경기부양을 통한 고용 증가
- 과도한 재정지출 억제를 통한 활발한 경제활동의 여건 조성
 - 재정건전화, 사회보장 부담금의 인하나 동결, 경제활동에서의 국가비율 축소 등
 -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대대적 개혁
- 강력한 인플레이 억제 정책으로 안정 성장 추구

나. 고부가가치 수출 구조 정착

- 독일이 세계 시장에서 우수품질을 인정받는 동시에 시장점유율이 높은 자동차, 기계, 전자 산업 등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

- 동 산업 내 기술혁신, 품질개선 등을 적극 유도
- 수출에 유리한 통화정책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 국민소득 2만불에 진입하던 80년대 말은 독일사상 산업가동률이 최대에 이른 시기

다.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조성

1) 독점금지법 도입

- 기업 및 은행의 민영화 적극 추진
- 통신부문 민영화 기반 마련
- 중소기업의 고용시스템 자유화
- 소규모 중소기업은 종업원 해고, 사회보장제도 운영, 근로조건(파트타임 등) 등에 유연성 부여
-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 자율성 보장

3. 2만불 달성을 위한 독일 기업의 전략

가. 중소기업의 전문화

- 독일은 건실한 중소기업이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적인 중소기업 강국
- 이들 중소기업은 가족기업이 대부분이며, 대개 2-3대에 걸쳐 특정 분야를 전문화
- 기술경쟁력, 마케팅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전문가 중소기업이 다수

나. 수출시장의 다변화

- 기존 EU 역내에 치중하던 수출시장을 미국 등 역외 거대시장으로 적극 확대하는 한편, 역동적 성장을 보이는 아시아 시장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 도입

다. 지속적인 기술혁신 노력

- 독일산업의 최대 경쟁력은 높은 기술력임을 인식하고 지역 및 기업 단위로 꾸준한 R&D 투자
 - 산학연 연계 네트워크 조직
 - 교육기회 확대를 통해 인력활용 극대화

라. 과감한 산업구조조정

-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과감하게 포기
 - 섬유, 신발, 단순 기계 조립 등 높아지는 독일의 인건비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은 중동구 유럽이나 남미, 아시아 등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여 이윤의 효율성 추구
- 하이테크 기술을 요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은 독일 국내 생산을 원칙으로 엄격한 품질 관리
 - 고급 승용차, 정밀기계, 고기능 섬유 등은 독일 내 생산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Made in Germany”의 가치 고양

미 국

1. 미국의 국민소득 2만불 달성에 주요 역할을 한 분야

가. 제조업 및 내수를 통해 달성

나. 배 경

- 미국 경제는 '70년대 후반까지 스태그플레이션과 생산성증가율 둔화로 인한 저 성장세 지속
- '80년대 초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내수진작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미국경제 재건 작업에 돌입(강한 미국 건설)
- '83년부터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 '88년까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뤘으며 이 기간 중 미국의 민간 소비규모는 GDP의 65%에 육박
- '80년(63%), '83년(64%), '84년(63%), '85년(63%)
- 미국의 무역의존도는 20% 내외임. 특히 세계최대의 소비시장으로서 무역적자를 기록했음

2. 1만불에서 2만불 진입 기간중 미국 경제 여건

가. 경제지표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경제성장률(명목)	13.0	11.8	8.9	12.0	4.1	8.5	11.3	7.1	5.7	6.5	7.7
경제성장률(실질)*	5.5	3.2	-0.2	2.5	-2.0	4.3	7.3	3.8	3.4	3.2	4.2
수출증가율(%)	17	26	21	8	-7	-3	9	-1	7	13	24
물가상승률	48	52	57	62	66	68	71	73	75	77	80
인구(백만불)	222	225	227	229	232	236	238	240	242	245	247
무역의존도	20	22	24	24	22	21	22	21	21	22	24
최저인건비(시간)	2.65	2.90	3.10	3.35	-	-	-	-	-	-	-
평균임금(천불)	13.3	14.4	15.8	17.2	18.5	19.4	20.3	21.3	22.2	23.1	23.1
실업률	-	-	7.1	-	-	9.6	7.5	7.2	7.0	6.2	5.5

주) *표시는 경제성장률(실질), 물가상승율은 1996년 기준

3. 1만불에서 2만불 달성기간 중 미국 정부의 전략 및 정책변화

가. 경제 정책

○ 감세 정책의 실시

- 개인소득세의 감세는 노동자의 노동의욕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투자에 필요한 저축을 증대시킴
- 법인소득세 감세는 기업저축을 증대시키고 이윤율을 상승시켜 설비 투자를 촉진시킴

○ 연방 재정지출 축소

- “강한 미국” 실현을 위해 필요한 국방비를 제외한 非군사지출을 축소, 민간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투자자금의 압박을 받지 않도록 조치
- 특히, 재정지출 가운데 의료보조, 사회보험 등의 복지지출은 소극적인 것이며 노동의욕을 감퇴시킨다는 논리로 축소함

○ 금융정책

-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통화공급량을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책정
- FRB의 독립성 보장

나. 규제 완화

- 각종 경제 정책과 더불어 여러 분야에서 행하고 있었던 과도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범위를 최소화

다. 산업구조의 변화

- 급격한 내수의 확대와 고달러 등의 경제환경 변화는 산업공동화와 서비스화의 급진전으로 나타남
 - 기간중 제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7년에는 GNP 대비 39.6%까지 내려갔으며 제조업 고용 비중은 18.6%에 그침

4. 2만불 달성을 위한 미국 기업의 전략

- 기간중 강한 미국을 건설하려는 정부와 실리를 추구하려는 기업 논리간 갈등이 표출됨
- 미국기업들은 1980년대 초반부터 일관되게 해외직접투자를 활발히 진행. 이는 주로 해외에서 시장을 찾고 생산과 판매거점 확보 전략차원에서 실행됨
 -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 결과 미국의 수입증대, 수출부진이 초래됨
 - 이윤극대화를 위한 기업의 전략과 정부의 전략간 괴리 발생

벨 지 움

1. 벨지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에 주요 역할을 한 분야

○ 무역과 투자가 공동으로 기여

○ 배 경

- 벨지움은 전통적으로 국제무역이 발달한 국가 중 하나로, 이는 석탄을 제외하고는 국부 창출을 위한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영토도 작아 (경상남북도를 합한 정도 크기) 해외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임
- 또한, '80년대에 들어 석탄자원 고갈로 채광 채산성이 낮아져 벨지움내 모든 탄광 채굴이 중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간의 국가 주력산업이었던 탄광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산업 개발이 필요해져, 벨지움 정부는 특히 탄광산업을 발달했던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적극적인 무역 증진과 투자유치정책을 대안으로 채택

2. 1만불에서 2만불 진입 기간('79-'91)중 벨지움 경제 여건

가. 거시 경제 지표

연도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경제성장률(실질)	-0.9	0.8	0.4	2.3	0.6	2.0	2.5	4.9	4.0	3.4
물가상승지수	100	-	-	-	129.9	-	133.6	135.2	139.4	144.2
환율	-	-	-	-	-	44.66	37.34	36.81	39.43	33.41
실업률	10.7	-	-	-	16.6	-	-	-	-	11.7
시간당 평균임금 (벨지움 프랑)	215	-	-	282	-	297	-	307	-	337

주) 경제성장률 : 실질 경제성장률, 수출지수 : 1980 = 100, 물가지수 : 1980 = 100, 환율 : 1 US\$ 기준, 실업률 : 활동인구(16세-65세 남녀) 대비 실업률

나. 무역관련 지표

- 벨지움 수출(상품+서비스)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74-'79년 동안 연평균 56.5%에서 '80-'90년대에는 연평균 72.6%로 대폭 증가하고 무역 수지도 -0.3%에서 1.7%로 증가

<벨지움 수출입(상품+서비스) 및 무역수지 추이>
(단위 : GDP대비 %)

시 기	수 출	수 입	무역 수지
1960-1967	41.9	42.4	-0.6
1968-1973	50.7	48.8	1.9
1974-1979	56.5	56.8	-0.3
1980-1990	72.6	70.9	1.7
1980	62.9	65.4	-2.5
1985	76.9	74.4	2.5
1989	77.2	73.7	3.5
1990	74.3	71.1	3.2

다. 투자관련 지표

- 벨지움 경제의 국제화는 다음과 같은 3단계에 걸쳐 이루어졌음

- 제 1단계

- 제 1차 및 2차 대전 사이에 GM, Bell Telephone, Philips, Siemens, Renault 등 세계 대기업들이 벨지움에 투자
- 이는 베네룩스 공동체 형성에 따라 벨지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3개국간 무관세 혜택을 이용하기 위한 것임

- 제 2단계

- 60년대에 특히 안트워프 항구를 중심으로 Monsanto, Bayer, BASF 등 특히 화학산업에 대해 외국기업이 진출한데 이어 Gand 지역에 Volvo, Genk에 Ford, Gosselie에 Caterpillar, Feluy에 Chevron, Namur에 Kraft, Liege에 Burroughs 등이 진출했음

- 제 3단계

- 1980년대를 의미하여, 특히 금융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외국기업들이 벨지움 기업에 대대적으로 자본 투자한 것이 특징임
 - 대표적 예로 Glaverbel, Tirelemont, Cote D'Or, Generale de Belgique, General de Banqu 등이 외국기업에 인수된 것을 들 수 있음
 - 그 결과 1990년 벨지움 대기업 3,515기업 가운데 30%가 외국인 기업이었으며 이들 대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중 외국인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은 43.8%이었음
- 이에 따라, 1만불에서 2만불 달성기간중 1980년대중 벨지움에 대한 외국인 투자규모는 1980년 230억 BEF(베네룩스 3국에 대한 투자에서 74% 차지)에서 1991년 2,050억 BEF(88.4% 차지) 으로 늘어났음

3. 1만불에서 2만불 달성기간 중 벨지움 정부정책 변화

가. 경제정책

- 국제화, 개방화 전략 추진
- '80년대중 금융시장 대폭 개방, 시장 국제화와 개방화 추진. 이에 따라 '80년대중 외국기업들이 벨지움에 대대적으로 자본을 투자하는 기초 마련
 - 대표적 예 : Glaverbel, Tirelemont, Cote D'Or, Generale de Belgique, General de Banqu 등이 외국기업에 인수
- 경쟁력 유지 및 국제합의 준수 목적의 벨지움 프랑화 평가 절하
- 벨지움 정부는 '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경제 전반과 더불어 국제수지가 악화된 상황에서 1982년 결국 유럽 파트너국가와의 합의로 벨지움 프랑 평가절하(-8.5%) 실시

- '85-'87년 달러 환율 인하로 국제수지의 균형 회복은 물론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고 물가안정정책과 더불어 국제 원자재 가격의 인하 추세 덕분으로 인플레이가 주요 경쟁국가의 평균 물가 수준에 달하게 됨으로써 경쟁력 유지 가능해짐
- 경제부흥법('78.12.18일 법)을 통한 기업투자 및 고용 창출, 수출장려 정책 추진
 - 경제부흥법(La loi d'expansion economique)을 제정하고 기존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신규 기업창출 지원, 환경투자지원, 고용창출 지원 조치를 취했으며, 특히 중소기업 중점지원
 - 또한, 수출 장려를 위해 기업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출하는 업체에 수출액 비율에 따른 고용부담 감축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 동 조치는 EU가 계속 기업간 공정 경쟁을 왜곡하는 국가보조금이라고 비난 해왔음('95년 이후 폐지)

나. 산업 및 수출정책

- 석탄산업 및 섬유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재조정 실시
 - '80년 들어 그간 벨지움의 주력산업이었던 석탄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벨지움 정부는 해외수출에 더욱 주력하는 한편, 중공업 중심지역(탄광지역)의 산업구조 재조정 작업 추진
 - 그 결과, 당시 대표적 탄광지역이던 Limbourg지역을 비롯, 특정 제조업이 없는 지역에 대한 관광산업 활발히 육성
 - '80년대 후반부터 대표적 노동집약산업인 섬유산업도 고부가가치화의 방향으로 산업구조 재조정 실시
 - 디자인 육성, 생산설비 현대화 목적으로 여러 형태의 정부 지원 제공

○ 무역진흥청(OBCE) 활성화

- 2차 대전후 경제 복구정책의 일환으로 1948년 설립된 무역진흥청(OBCE)의 역할과 기능 활성화
- 당시 Albert 황태자(현 Albert 2세 왕)를 명예회장으로 하여, 동인의 주도하에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을 비롯한 다양한 수출 지원조치 실시

다.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의 변화

○ 신규 고용촉진정책 및 연수제도 강화

- 산업구조 재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 해소를 위해 '80년대 벨지움 정부는 특히 장기 실업자와 저임금 노동인력의 고용 장려를 목적으로, 이들 고용에 대한 고용주의 고용세(피고용인에 대한 고용주 사회 보장 할당액)를 감축
- 장기 실업자와 저 능력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제도 대폭 확충

○ 노·사·정간 합의에 따라 10년간 봉급인상을 사실상 동결

- '60년대부터 만들어져 노사문제를 협의해온 노사협의회(Concertation Sociale)는 인플레이와 기업경쟁력 악화를 막기 위해 '85-'94년 10년 동안 임금인상폭을 물가인상률 범위 내로 한정하기로 합의

라.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 세제 인센티브를 통한 외국인투자 핵심부서 유치

-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82년 벨지움 정부는 벨지움에 유럽 본사(일명 Centre de Coordination이라고 부르며, 기획·관리·마케팅 전략수립 등 해당기업의 두뇌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를 의미함)를 설립한 기업에게 특별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실시

※ 동 제도는 각종 무역 및 투자제도 중 벨지움의 국제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벨지움에 Centre de Coordination을 설립하기 시작해, 2003년 현재 220개의 Centre de Coordination 가 소재하고 있음
- Centre de Coordination에 부여하는 특별 세제 혜택
 - 일반 법인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창출한 수익을 기초로 하는데 Centre de Coordination에 대해서는 Centre de Coordination 이 창출한 수익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Centre de Coordination의 실질 운영액을 기초로 법인세를 부과
 - EU 집행위는 2001년 7월 벨지움 정부에 Centre de Coordination에 대한 세제 혜택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벨지움 정부는 2003년 1월 집행위와의 협상에서 2010년까지 지속하기로 합의. 그러나 최근 또다시 집행위로부터 동 제도의 폐지가 운운되고 있음

스웨덴

1. 국민소득 2만불 달성에 주요 역할을 한 분야

- 무역을 통한 달성 (수출 지향적 경제정책 운용)

2. 1만불에서 2만불 진입 기간중 주재국 경제 여건

가. 거시 경제지표

연도	경제성장률	수출증가율	물가상승률	대미환율
1977	-1.6	N/a	11.42	4.49
1978	1.75	N/a	10.01	4.53
1979	3.84	N/a	7.2	4.29
1980	1.67	N/a	13.83	4.23
1981	- 0.2	2.4	12.69	5.08
1982	1.2	6.7	8.91	6.30
1983	1.9	10.0	8.95	7.68
1984	4.3	7.1	8.09	8.27
1985	2.2	1.2	7.48	8.60
1986	2.8	3.4	4.09	7.12
1987	3.3	4.3	4.22	6.34
1988	2.6	2.8	6.09	6.13

자료원: 스웨덴 통계청, 중앙은행, 경제연구소

주1) 스웨덴은 법정 최저임금이 없는 관계로 연도별 최저임금 직군(종)의 평균임금으로 최저인건비 통계 대체

주2) 수출의존도는 연도별 GNP에서 대외수출액 기여분

3. 1만불에서 2만불 달성기간 중 주재국 정부 전략 및 정책변화

가. 경제정책

1) 경제민주주의에 기초한 성장과 분배의 균형 달성

- 1920년대 소수정당으로 최초 집권한 사회민주당정권은 노동자 주체의 좌파 정당이었으나 주요 생산수단의 국유화 실천강령을 유보하고 적극적인 사회복지 정책과 함께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 이후 장기집권 과정을 거쳐 스웨덴 경제 전성기였던 '70년대로 접어들면서 경제정책의 사회화노선을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대신 경제민주주의 노선을 추진, 재산과 경제권력의 집중화를 통제코자 노동자기금(Wage earner fund)을 입안하여 1983년 이를 법제화함
- 노동기금 법안의 핵심 내용은 매년 대기업으로부터 초과이윤을 각출, 노동자 기금을 구성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이 주식 등의 형태로 동기금을 소유 운영('91년 보수당 집권시 폐지됨)

2) 수출지향적 개방경제 정책 추진

- 1900년대 초기까지 유럽내 후진 국가였던 스웨덴의 경제성장 전환기는 1, 2차 세계 대전 직후 유럽 주변국의 전후 복구사업 수요에 따른 본격적인 수출확대 시기였음
- 이후 고도 성장기 과정을 겪으면서 소수 인구로 인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수출지향적 경제정책으로 극복코자 하였으며, '70년대 이후 자국 유력 수출기업의 다국적 기업화 성장과정에서 국내시장을 대부분 개방하고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

3) 자국 유력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유집중 인정

- '70년대 후반 국민소득 2만불을 향한 수출 지향적 개방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되고 상당수 스웨덴 유력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
- 자국 유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웨덴 정부는 지주회사와 차등의결권 제도(소수 주식보유지분으로 다수 의결권 행사)를 통해 소유집중을 인정함으로써 에릭슨, 볼보, ABB, 일렉트로룩스 등 자국 유력 기업 대부분의 소유권이 Investor사라는 1개 지주회사에 집중

나. 산업정책

1) 대기업 중심의 전략산업 발굴과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 '70년대 후반까지 호황을 누리던 조선 등 대규모 장치 산업을 매각하는 대신 자동차, 정보통신, 제약산업 등을 국가핵심산업으로 선정, 선택 집중적인 투자와 성장지원 정책 수행
- 스웨덴 정부가 국가 핵심산업으로 선정한 분야는 단순히 수출시장 성장 잠재력이 클 뿐 아니라 이미 자국 유력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군인 까닭에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
- 신흥 핵심 산업군에 속한 상당수 유력기업들이 단일 지주회사에 의해 소유되어 인수합병 등이 효율적으로 진행

2) 자국 유력 기업의 독점력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 추진

- '76년 전략산업의 기술 독점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IT 산업 클러스터인 시스타 사이언스파크를 설립, 현재 미국 실리콘밸리에 이은 세계 두 번째 규모의 IT 산업클러스터로 육성
- 또한, 세제를 통해 대기업 이윤 배당금의 절반 가량이 연구개발비로 투자되도록 유도함으로써 IT, BT 등 첨단산업분야에서 독점적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기여
- 아울러 경쟁산업의 시장 독점력 확보를 위해 자국 유력 기업 주체의 인수합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주회사 중심의 광범위한 대기업 소유집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다.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의 변화

- 노동자 주체 정당인 좌파계 사회민주당 정권은 전통적으로 '70년대 중반까지 기업인, 고용주 단체 등과 긴장과 협력의 균형관계 유지

- 그러나, '7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인 산업 구조조정 시기에는 오히려 보다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 산업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이루어 나감
- 산업 구조조정기에 친 노동자 성향의 정부와 기업인간의 협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노동자 주체의 사회민주당 정권이 전환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국가 운영의 책임자로서 기업인들과 공유했기 때문
- 또한, 집권당이 노동자 주체의 정당인 관계로 노사 양측의 중재자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으며, 성장과 분배의 균형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개별 노동자들이 사회복지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었기 때문임

4. 2만불 달성을 위한 주재국 기업의 기업전략

- 스웨덴 기업의 성장 전략 핵심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독점력 확보이며, 지주회사를 통한 소유집중과 인수합병으로 이러한 전략을 구체화 함
-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독점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임
- 기술 독점력을 핵심성장 전략으로 추진한 스웨덴 기업의 예로, 제약회사인 아스트라(ASTRA)를 들 수 있음. 아스트라는 연구기술력을 바탕으로 위장약 잔약을 개발, 관련 시장에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함

스 위 스

1. 스위스의 국민소득 2만불 달성에 주요 역할을 한 분야

- 정치적 중립, 은행비밀주의, 산업발전에 따른 경제의 성장, 보수적인 통화운용에 따른 금리 및 물가의 안정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을 육성하여 2만불 목표를 달성

2. 1만불에서 2만불 진입기간 중 주재국 경제여건

가. 거시경제지표

구분(단위)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실질GNP(SFr.백만)	100,295	103,080	107,365	110,035	108,780	109,970	113,420	117,970
경제성장률(%)	0.37	2.78	4.16	2.49	-1.14	1.09	3.10	4.00
수출증가율(%)	NA	15.2	24.8	-1.26	-6.21	5.17	13.03	8.29
물가상승률(%)	1.01	3.66	4.03	6.48	5.65	2.94	2.94	3.45

자료원 : 스위스 연방통계청

나. 기타 지표

구분(단위)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명목임금상승률(%)	3.18	3.29	5.38	6.24	7.03	3.74	2.80	3.10
실업률(%)	3.33('75)	NA	0.2	NA	NA	NA	NA	0.96

자료원: 스위스 연방통계청

3. 2만불 달성기간 중 주재국 정부전략 및 정책변화

가. 기업정책

- 스위스 정부는 기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접 개입하여 기업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없음

- '70년대 일본산 카메라의 경쟁력 강화로 스위스 카메라 업체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고급 측량 기기 생산과 같은 틈새시장 개척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
- '70년대 일본산 저가 시계의 출현으로 스위스 해당업체들 위기에 직면했으나, 뛰어난 디자인 및 저가정책을 무기로 한 Swatch 브랜드의 출현을 계기로 경쟁력을 회복

나. 노동정책

- 스위스의 국민소득 2만불 달성기간은 인력부족 및 실업문제가 주요 사회문제였기 때문에, 스위스 정부는 노동정책에 주안점 부여
 - 노동력 확보 : 노동정책의 우선 순위는 노동력 확보였으며, 스위스는 '87년 기준 인구의 약 20%가 외국인일 정도로 외국인 노동력의 활용에 적극적이었음
 - 실업정책 : 불경기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카운슬링, 재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별 투자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치
 - 복지정책 : 실업보험확대를 통한 복지강화 및 고용주 및 종업원간 지속적인 임금·휴가·육아·근무시간·휴가협상을 통해 마찰 소지 제거

4. 2만불 달성을 위한 주재국 기업의 기업전략

- 국민소득 2만불 달성기간 동안 기업들이 전략차원에서 취한 조치는 없음
 - 그러나, 동 기간중 동안 저가 노동력을 바탕으로 외국으로부터 위협받는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집중하여 고부가 제품을 생산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 현재 스위스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음

<스위스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비중>

구분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미국	33.8	34.1	36.1	36.7	37.0	37.9	39.7	42.5
스위스	42.1	40.8	40.6	40.1	40.4	41.2	40.7	40.4
일본	27.2	27.4	29.2	30.3	30.3	31.5	31.4	34.8
영국	27.0	26.5	27.9	28.0	29.5	30.6	32.5	32.8
독일	25.7	25.6	25.8	25.6	25.98	25.9	26.3	26.7
프랑스	21.8	21.3	21.8	22.5	22.0	22.5	25.4	24.8
스웨덴	17.4	17.6	17.6	17.3	17.7	17.7	18.7	18.9

자료원 : The Swiss Economy, Data/Facts/Analyses (UBS, 1987)

5. 우리 나라에 대한 시사점

가. 부존자원의 한계를 은행업 및 고부가 산업으로 극복

- 1934년에 제정된 은행비밀보호법을 기반으로 2차 대전 이후 유럽의 유일한 국제금융센터로서 역할을 수행,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
- 풍부한 자본투자를 바탕으로 화학·기계·제약 등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투입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국민소득 1만불 달성 이후, 수출에서 하이테크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연 40%대 유지

나. 민간주도형 자유시장 경제체제

- 기업경쟁력의 원천은 시장을 존중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개입은 극도로 자제
 - 정부는 안정적인 거시경제여건과 연구개발투자의 지원에 주력하고 기업 활동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

싱가포르

1. 싱가포르의 국민소득 2만불 달성에 주요 역할을 한 분야

- 수출의존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경제구조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며 수출과 외자유치를 양대 성장엔진으로 2만불 목표를 달성

2. 1만불에서 2만불 진입기간 중 주재국 경제여건

가. 거시경제지표

구 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경제성장률(GDP)	9.2	8.3	6.7	6.2	10.4	10.5
1인당 GNP 성장률(%)	10.8	10.4	6.2	6.1	10.6	13.1
Total Trade	10.0	11.4	5.4	2.2	16.4	18.1
Imports	9.8	13.4	4.0	2.9	17.1	13.7
Exports	10.2	9.3	7.0	1.4	15.6	23.3
Domestic Exports	11.5	13.6	5.2	0.5	13.7	17.4
Re-Exports	8.0	1.8	10.5	3.3	19.1	33.4
실업률(%)	2.2	2.0	1.9	2.1	2.0	1.9
대미환율	1.9503	1.8125	1.7276	1.6290	1.6158	1.5274
물가상승률(CPI)	2.4	3.4	3.4	2.3	2.3	3.1

자료원 :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1991, 1997

3. 2만불 달성기간중 싱가포르의 정부전략 및 정책변화

가. 산업구조고도화를 통한 경제구조의 질적 변화

- '80년대 중반 세계적 경기침체에 직면하면서 주력산업이었던 석유정제 산업과 조선·수리부분의 부진 등으로 최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산업구조고도화를 통한 경제구조의 질적 변화를 시도하면서 '90년대 역내 경제성장과 전자산업의 세계적 호황을 배경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

나.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

- '85년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구성되었던 경제위원회는 '86. 2월 '싱가포르 경제 : 새로운 방향(The Singapore Economy : New Direction)'이라는 보고서를 발표. 주요내용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

다.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무게 중심 이동

- 기존의 정부정책이 초점을 제조업에 두었다면, 경제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은 서비스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교우위 분야라고 할 수 있는 해운, 항공운송, 통신 외에 국내 및 해외시장을 향한 경영비즈니스를 확대하는 것이었음
- 이와 관련하여 의료서비스, 출판, 농업기술 서비스, 창고 및 유통업, 컴퓨터, 교육 및 실험 등의 분야에 외자를 유치하여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함
- 제조업은 전자·통신·정보기술·생명공학·의약·광학 등을 제외하면 그 성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므로 경쟁력 있는 부문에 지원을 확대하고, 다국적기업들이 생산기지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총괄본부로서 싱가포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정책을 추진하자는 정책적 권고가 이루어짐
- 이에 따라, 은행·금융, 운수·통신, 제반 경영서비스 기능과 제조업 부문을 통합하여 생산거점 역할뿐만 아니라 제품개발, 마케팅, 유통, 경영관련 제반서비스와 자금관리기능에 이르기까지 국제적 비즈니스 센터로서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적극 모색되기 시작
- 싱가포르를 지역총괄본부로 이용하려는 다국적기업들에 대해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한편 항만, 공항, 창고,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부품조달업무를 집중하려는 기업에 대하여 국제 조달 사무소로서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등 국제비즈니스센터 육성정책에 큰 비중이 실림

라. 기술 집약적 산업의 육성

- '91년 10월 '전략적 경제계획(Strategic Economy Plan)'이 발표됨.
'90년대 산업정책을 기술 집약적 산업의 육성과 서비스 부문의 발전에 두고, 국제적으로 비즈니스센터로서 싱가포르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
-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경제발전의 양축으로 설정하여 산업발전을 주도할 전자·석유화학·엔지니어링 등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집단의 일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클러스터 개발전략(Cluster Development Strategy)을 도입하여 제조업 부문의 종합적 발전계획을 추진함
 - 지역협력을 강화하여 동남아시아의 통합과 발전을 도모하면서 성장의 삼각지대를 국제공업단지로 조성함으로써 동남아의 생산거점으로 발전시키고, 기업의 국제화를 위해 역내 주변국으로 투자진출을 장려

4. 우리 나라에 대한 시사점

- 싱가포르는 독립이래 고도성장을 지속하다가 '85년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싱가포르정부는 불황타개를 위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 시행
 - 산업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서 '90년대 초반 전자산업의 세계적 호황을 배경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
-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세계적 호황이 맞물려 단기간내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밑바탕에 싱가포르가 가진 많은 장점들, 즉 우수한 비즈니스 인프라와 합리적인 정부정책, 계획적 투자유치정책 등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임

아일랜드

1. 아일랜드의 국민소득 2만불 달성에 주요 역할을 한 분야

- 외국기업들의 직접투자와 투자기업들의 수출증가를 바탕으로 2만불 목표를 달성

2. 1만불에서 2만불 진입기간 중 주재국 경제여건

가. 거시경제지표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경제성장률(%)	4.5	6.2	7.1	1.9	3.3	2.7	5.8	9.9	8.1
수출증가율(%)	14.74	18.63	-1.79	4.76	11.48	18.43	14.74	22.29	9.28
물가상승률(%)	2.2	4.1	3.3	3.2	3.1	1.4	2.3	2.5	2.0
환율(IEP/USD)	1.53	1.41	1.65	1.61	1.70	1.46	1.49	1.60	1.60
무역수지(십억유로)	2.7	2.9	2.4	2.8	4.5	6.3	7.0	9.2	10.1
외환보유고(십억유로)	3.3	2.7	3.1	3.6	2.2	4.6	4.4	7.0	6.3

나. 기타 지표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인구밀도 (인구수/백만명)	50.6 (3.54)	50.4 (3.53)	50.0 (3.50)	50.3 (3.52)	50.3 (3.52)	50.6 (3.54)	50.6 (3.54)	51.4 (3.60)	51.9 (3.63)
무역의존도 (총무역액/GDP)	0.99	1.06	0.94	0.94	0.95	1.02	1.09	1.17	1.16
최저임금	-	-	-	-	-	-	-	-	-
평균인건비(주당 평균임금, EUR)	269.29	279.72	291.04	304.06	315.74	333.49	342.71	349.91	360.11
실업률	16.3	15.0	12.9	14.7	15.1	15.7	14.7	12.2	11.9

주) 최저임금제는 2000. 4. 1일부터 도입

3. 2만불 달성 기간중 아일랜드 정부의 전략 및 정책 변화

가. 경제정책

- '87년도는 실업률이 17%에 달하고, 정부부채도 GDP의 118%에 달해 아일랜드 경제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던 시기

- 아일랜드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
 -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연대협약 체결로 평화적인 노사관계 구축
 - 외국투자기업에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급
 - 효율적인 투자유치 전담기관 운영
 - 재정지출 감축을 통한 균형재정 달성
 - 소득세 감면을 통한 실질 소득 증가

나. 산업 정책

- 제조업 육성을 위한 특혜세제 실시
 - 제조업 육성을 위하여 '81년부터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10%의 특혜 법인세부과 (당시 법인세 40%)
- 고용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추진
 - '81년부터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10% 특혜 법인세 부과
 - '82년부터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 '94년에 국내기업지원과 외국기업 투자유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던 IDA(Industrial Development Agency)를 세 개의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시키고, IDA가 외국투자유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

다. 산업 및 수출구조의 변화

- 아일랜드는 전통적으로 목축업 국가였으나, 외국투자기업 유치를 통하여 대규모 제조산업이 비로소 발달하기 시작
- 외국투자기업 유치를 통하여 집중 발전시킨 산업은 전자·화학 및 의약·금융·서비스산업임

- 산업구조의 변화를 보면, '92년도에 9.8%이었던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96년에는 7.6%로 낮아진 반면, 제조업 비중은 37.8%에서 41.4%로 높아짐
- 수출상품의 구조 변화를 보면, '92년에 22.6%에 달했던 식품육류 수출 비중이 '96년에는 13.8%로 크게 줄어들고, 원부자재 수출도 7.5%에서 4.5%로 떨어진 반면, 화학·의약품 수출비중은 19.0%에서 22.3%로, 기계설비장비는 26.8%에서 34.8%로 대폭 증가

라.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의 변화

- '87년 노사정 합의하에 『사회연대협약』을 체결하고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구축
 - 협약을 통해 노측은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정부는 소득세를 인하하고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
 - 사회연대협약은 매 3년마다 신규 체결되며 현재까지 유지

마. 사회의식구조의 변화

- '80년대 중반 국가파산위기까지 몰렸던 상황을 극복하고, 외국투자유치를 통한 고도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었기 때문
- 정치권의 여야는 물론 사회단체, 사용자, 노동자 등 각 계층이 자신들의 주장을 양보하고 사회연대협약을 이룩함으로써, 외국투자 기업들이 안심하고 아일랜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아일랜드 기업의 전략

- 2만불 소득 달성 기간동안 아일랜드 정부는 “Technology Acquisition Grant Scheme 1986” 이라는 정책을 도입하여, 기업들의 경영 기술, 마케팅 프로그램, 신제품 개발 등에 보조금 지원 정책 추진
- 아일랜드 진출 다국적기업들이 아일랜드 내에서 원자재 및 서비스를 조달하면서 국제적 수준 요구
 - 이것이 발전의 기폭제가 되어 다국적기업에서 경험을 축적한 아일랜드인들이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자체기반 발전 계기화

5. 우리 나라에 대한 시사점

- 아일랜드가 '88년 1만불 소득을 달성하고 '96년에 2만불을 달성할 수 있었던 요인은 '8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를 전 국민이 합심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기 때문
- 특히, 제조업분야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들이 대부분 수출 지향적인 기업들로 아일랜드의 수출증가 및 외화획득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의 이전으로 아일랜드의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
- 또한, 부존자원도 거의 없고 제조업기반도 없었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동시에 달성하여 소득 2만불 시대를 열 수 있었음

영 국

1. 영국의 국민소득 2만불 달성에 주요 역할을 한 분야

○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책기조변화를 통한 개혁 추진

2. 1만불에서 2만불 진입기간 중 주재국 경제여건

가. 거시경제지표

1) 경제성장률 (GDP 증가율)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Index(주)	81.0	84.6	89.0	90.9	91.6	90.4	90.6	92.9	97.2	100.0	102.6
성장률(%)	...	4.4	5.2	2.2	0.8	-1.3	0.2	2.5	4.6	2.9	2.6

자료원 : 영국 통계청

주) '95년 100으로 한 경상가격 기준, 국내총생산 인덱스 지수임

2) 수출입 증가율(상품 교역기준)

(단위 : 백만 파운드)

구 분	수 출	증가율(%)	수 입	증가율(%)
1986	72,997	...	82,614	...
1987	79,531	9.0	91,229	10.4
1988	80,711	1.5	102,264	12.1
1989	92,611	14.7	117,335	14.7
1990	102,313	10.5	121,020	3.1
1991	103,939	1.6	114,162	-5.7
1992	107,863	3.8	120,913	5.9
1993	122,229	13.3	135,295	11.9
1994	135,143	10.6	146,269	8.1
1995	153,577	13.6	165,600	13.2
1996	167,196	8.9	180,918	9.3

1.

자료원 : 영국 통계청

3) 물가상승률(소매물가 지수 상승률 기준, 기준 년도 1987=100)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물가 지수	...	101.9	106.6	112.9	122.1	130.3	136.4	140.5	143.8	147.9	152.3
상승률(%)	...	...	4.6	5.9	8.1	6.7	4.7	3.0	2.3	2.9	3.0

자료원 : 영국 통계청

4) 환율 변동(1파운드당 대미달러 환율 기준)

	대미 환율	변동율(%)
1986	1.4672	..
1987	1.6392	11.7
1988	1.7796	8.6
1989	1.6383	-7.9
1990	1.7864	9.0
1991	1.7685	-1.0
1992	1.7665	-0.1
1993	1.5015	-15.0
1994	1.5329	2.1
1995	1.5783	3.0
1996	1.5617	-1.1

자료원 : 영국 통계청

5)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

(단위 : 백만 파운드)

	투자유치액	증감율(%)
1986	5,850	...
1987	9,595	64.0
1988	12,655	31.9
1989	19,228	51.9
1990	19,132	-0.5
1991	9,197	-51.9
1992	9,416	2.4
1993	10,943	16.2
1994	7,099	-35.1
1995	13,831	94.8
1996	17,562	27.0

자료원 : 영국 통계청

나. 기타 지표

1) 실업률(실업수당 신청비율 기준)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실업률(%)	10.5	9.4	7.6	5.9	5.5	7.6	9.2	9.7	8.8	7.6	7.0	5.7

자료원 : 영국 통계청

2) 주급(풀타임 근로자 주급 기준 산출)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주급(파운드)	181.1	195.3	214.7	235.3	258.6	280.8	301.1	313.3	323.3	333.1	348.5	364.4
증가율(%)	...	7.8	9.9	9.6	9.9	8.6	7.2	4.1	2.9	3.4	4.6	4.6

자료원 : 영국 통계청

3) 최저 인건비

- 영국의 경우 최저인건비 관련법령이 1999. 4. 1일부터 발효되어 2만 불 달성 기간과는 해당사항이 없음
 - 다만, 2003. 10월부터 22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최저 인건비가 종전 4.20파운드에 4.50파운드로 인상되며 18-21세 까지는 종전 시간당 3.60파운드에서 3.80파운드로 인상됨

4) 무역의존도

- 국내총생산에서 영국의 수출·수입(서비스교역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경상 가격(current price) 및 계절 조정 통계치 기준

	총수출 (A)	총수입 (B)	GDP (C)	무역의존도 (A+B)/C
1986	72,997	8,2614	381,317	40.8
1987	79,531	91,229	419,631	40.7
1988	80,711	102,264	468,386	39.1
1989	92,611	117,335	514,168	40.8
1990	102,313	121,020	557,300	40.1
1991	103,939	114,162	586,149	37.2
1992	107,863	120,913	610,854	37.5
1993	122,229	135,295	642,327	40.1
1994	135,143	146,269	681,327	41.3
1995	153,577	165,600	719,176	44.4
1996	167,196	180,918	762,214	45.7

자료원 : 영국 통계청

3. 1만불에서 2만불 달성기간 중 영국 정부 전략 및 정책변화

가) 정책 기조 변화 : 미국식 자유시장 경제 이념 도입

- 영국의 2만불 진입은 외환위기로 인한 '76. 12월 IMF 구제금융 신청이후 '74년부터 '79년 당시 노동당 정부가 추진하던 노사정 사회계약의 실패이후 악화되었던 영국 병을 치유하기 '80년대 초 대처수상이 펼쳤던 강력한 개혁정책이 전환점이 되었던 것으로 분석됨
- '50-'60년 미국, 일본, 독일의 부상과 함께 산업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가운데 '70년대말 영국 병이 악화되면서 영국 경제의 위기가 고조에 이름
- '80년대초 대처 수상이 노동개혁, 공기기업민영화, 규제완화,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금융개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시장경제원리의 강조와 효율적인 정부를 기치로 대대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80년대 후반부터 회복되기 시작함

-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 1984년 대처수상의 전국 광산노조 총파업에 대한 승리는 대표적인 노동개혁사례로 언급되고 있음
- 이후, 영국 경제는 '80년대 후반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여 '80년대 중반부터는 연간 4-5%의 성장을 지속함
- '90년대초 외생적 요인으로 인한 단기 불황이후 영국 경제는 '92년도 이후 2002년 말까지 11년간 성장국면이 지속됨
- OECD 최근 통계에 따르면 '70년대 EU 평균 GDP 성장률 3.4%보다 약 1%낮은 2.4%대의 성장률을 보이던 영국은 '80년대 들어 반전, 2.3% 평균성장률로 EU의 2.2%를 추월하였음
- '90년대 들어와서도 평균 성장률 2.1%로 역시 EU 평균 성장률 2.0%를 상회하였고 최근까지도 EU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나) 외자 유치

- 저렴한 노동비용, 유연한 노동시장, 규제완화,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으로 영국의 유럽의 제1위 투자유치국으로서 외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에 성공을 거둠
- 강한 노조로 영국 진출을 꺼렸던 외국기업들이 노사관계 안정화 이후 진출을 가속화
- 영국의 2만불 소득 진입에 전환점이 되었던 대처리즘은 현재까지 영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기조로서 '97년 집권한 블레어 노동당정부도 이러한 정책기조를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있음

4. 우리 나라에 대한 시사점

- 영국의 '70년말 위기 극복이후 2만불 진입에 성공한 사례가 우리 나라에 시사하는 점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자본조달의 용이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측면에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강력한 개혁 정책의 수립과 시행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정책기조의 시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의 확충을 통한 갈등국면의 조정능력 강화가 수반되어야 함
-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글로벌 시각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우수 기업들을 유치하여 첨단기술과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올려놓아야 할 것임
- 1만불의 벽을 깨고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사례를 구체적으로 벤치마킹 함으로써 2만불 진입을 위해 수행이 필요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강화되어야 할 것임

오스트리아

1. 오스트리아의 국민소득 2만불 달성에 주요 역할을 한 분야

- 수출과 관광산업 주도로 일인당 국민소득 2만을 달성

2. 1만불에서 2만불 진입기간 중 주재국 경제여건

가. 거시경제지표

구분	실질경제성장률(%)	수출증가율(%)	물가상승률(%)	대미환율
1980	2.3	10.1	6.4	13.41
1981	-0.1	11.3	6.8	12.99
1982	1.9	5.9	5.4	15.92
1983	2.8	3.9	3.3	17.96
1984	0.3	13.4	5.6	20.01
1985	2.2	12.5	3.2	20.69
1986	2.3	- 3.3	1.7	15.27
1987	1.7	0	1.4	12.64
1988	3.2	11.9	2.0	12.35
1989	4.2	12.0	2.5	13.23
1990	4.6	8.6	3.3	11.37

자료원: 오스트리아 통계연감

3. 1만불에서 2만불 달성기간 중 주재국 정부 전략 및 정책변화

가. 거시경제정책의 변화

- 국민소득 1만불에서 2만불 달성기간 중의 경제정책은 정부구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
 - 전반기는 케인즈 이론 위주의 경제정책과 사회복지 확대정책이 종료되고, 후반기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기반 마련

나. 수출드라이브 정책

- 내수진작정책은 '83년으로 만료되고 '84년부터 '90년까지는 수출이 경제발전을 주도
 - 연방상공회의소가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보조해주는 형태를 취함
- 국민소득 1만불에서 2만불 달성기간중 경제의 수출의존도는 2.7% (1980년)에서 25.9%(1990년)로 늘어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90년대 및 2000년대에도 계속
 - 2002년도 오스트리아 경제의 수출의존도는 30%가 넘는 것으로 추정

다. 중소기업 지원정책

- 중소기업 정책은 수출대금 보증기금 운용, 투자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
 - 이는 '70년대를 통해 자리를 잡은 중소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임

라. 관광진흥 정책

- 전통적인 관광국이지만 '80년대 서유럽의 해변관광 붐으로 어려움에 봉착
 - 사시사철 관광자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외국인들에게 부각시켜 관광국의 위치를 회복
 - 관광수입이 '80년대를 통해 꾸준히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4~5% 수준 유지

라. 산업 및 수출구조 변화

1) 산업구조 변화

- 국민소득이 2만불로 증가하는 동안 오스트리아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줄어드는 대신 3차 산업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재산신탁 등 금융업종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시현하였으며, 이들 업종은 1990년대 동유럽에 대거 진출하여 오스트리아를 중부유럽의 금융허브(Hub)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됨

2) 수출구조 변화

- 의류, 신발류 등 노동집약적 제품과 철강재 등 부자재의 수출이 감소하고 기계류의 수출이 대폭 증가
- 이는 아시아지역 국가의 유럽시장 진입에 기인

마.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변화

- 오스트리아는 '60년대 초반부터 사회동반자제도라는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음
- 사회동반자제도 최고기관인 "물가와 임금에 관한 평의회"에서 의결권은 노동계 2표, 사용자측 2표 그리고 정부 2표로 결정
- '67년 국민당 단독정부 성립후 정부가 의결권을 포기하였으며, 이후 관례화하여 단독정부인 경우에는 노사정협의회에 정부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표결에는 참가하지 않게 되었음
- '80년대는 사회동반자제도가 잘 운영되어 노사관계가 안정되었음

바. 사회의식구조변화

- '80년대의 가장 큰 변화는 '70년대를 통해 제도권정치에 익숙해진 노동계에서 경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용자측과 타협하게 되었다는 것임
- 단순히 임금인상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여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자세가 틀을 잡게 되었다는 것임

- 오스트리아 노총과 함께 사회동반자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 회의소는 경제분석 및 전망, 임금 인상수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노사가 타협하는데 크게 공헌

4. 2만불 달성을 위한 오스트리아 기업의 전략

가. 특화산업 및 틈새시장 진입에 총력

- 오스트리아 기업들은 '80년대를 통해 일반산업제품 생산을 지양하고 특화산업에 전력투구하거나 틈새시장을 구축하는데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시장개방은 '90년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폐쇄적 시장운용이 이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국내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평가도 할 수 있음
- 이러한 전략을 추진한 결과 오스트리아 기업 중에는 세계시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견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이 수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음

5.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점

- 오스트리아와 우리 나라는 여러 측면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음
 - 그러나, 수출위주 경제발전정책, 산업특화정책 그리고 노사관계 안정정책은 우리가 벤치 마킹할 필요가 있는 정책으로 판단됨

이태리

1. 이태리의 국민소득 2만불 달성에 주요역할을 한 분야

-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로 석유 등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무역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음

2. 1만불에서 2만불 진입기간 중 이태리 경제여건

가. 거시경제지표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GDP(억불)	6,028	7,583	8,371	8,681	10,940	11,150
경제성장률(%)	10.8	9.4	10.9	9.3	9.9	8.9
인구수(백만명)	56.5	56.5	56.5	56.5	56.5	56.7
국민소득(달러)	10,670	13,413	14,807	15,359	19,357	20,278
수출(백만 달러)	97,204	116,711	127,859	140,556	170,486	169,473
인플레이션(%)	6.1	4.6	5.0	6.6	6.1	6.4
실업률(%)	11.1	11.9	12.0	12.0	11.0	10.9
대미환율	1,490.7	1,296.8	1,302.9	1,373.5	1,198.4	1,241.6

자료원: ISTAT(이태리통계청), IFS(세계경제통계)

3. 2만불 달성기간중 이태리 정부 전략 및 정책변화

가. 전문 산업단지를 통한 성장

- 이태리는 전문화된 소기업들이 품목별 산업단지를 형성하고 관련 산업을 주도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 주요 수출품목중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세

나. 지방정부의 대업체 지원 역할 강화

- 이태리 지역별로 형성된 산업단지 및 해당지역 업체들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활발한 지원활동

- 지방은행 · 상공회의소 · 협회 · 투자진흥청 · 기술학교 등 지역내 공공 단체 등을 통해, 신용대출, 교육훈련, 기술개발 및 이전, 바이어 소개 및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 수출촉진활동을 강화

4. 우리 나라에 대한 시사점

가. 지역별 특화 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육성 노력 강화

- 이태리 산업지구는 이태리의 사회, 문화, 경제환경에서 자연적으로 발전해 온 형태로, 장인정신과 업체간 상호공존협력이라는 측면이 매우 독특한 특징을 보임
- 이태리 산업지구가 생성이후 다음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발전
 - 한국의 경우, 이태리처럼 섬유 · 안경테 · 귀금속류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군집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에서 참고가 필요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 활동 강화

- 이태리는 총 394만개 업체중 평균 종업원 수는 4명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 이태리는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들의 기술 · 제품개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소기업 주도의 경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위해, 정부 및 관련 협회는 전문 중소기업들에 대한 마케팅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음
- 품목별 특화전시사업 육성 및 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 사업, 해외시장 정보 수집 및 전파 노력 등을 들 수 있음

일 본

1. 국민소득 2만불 달성에 주요 역할을 할 분야

가. 무역

- 한국처럼 부존자원이 미약하고 내수의존 성장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일본의 경제성장은 무역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 '70년대는 오일쇼크로 원유가격이 급등, '73-'75년, '79-'80년 기간 공히 입초를 기록하였으나 기업의 합리화노력 등으로 '81년부터 출초로 반전
- '81-'87기간중 수출증가율은 평균 9%에 육박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배 이상 상회하는 수출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일본의 경제성장을 주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나. 제조업 및 내수

- '73년 변동환율제로 이행하면서 일본경제가 엔고시대로 진입. 특히, '85년플라자 합의이후 엔고의 급격한 진전으로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수익의 악화가 야기되면서 엔고 불황을 초래
 - 기업은 합리화 추구, 생산거점의 해외이전, 부품 해외조달 등을 통한 엔고 대응노력과 더불어 수출주도에서 내수시장판매로 중점을 두는 전략으로 이행
- '80년대 중반을 전후로 하여 일본정부는 국제적 협조에 의한 엔고 시정, 금융 완화,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 도모
- 정부도 중앙은행 재 할인율 인하, 공공사업 확대 등의 내수촉진대책을 추진하여 적정 경제성장률 유지 및 엔고 불황 극복시책 전개

- '86년은 엔고불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경제가 구조전환을 지향한 시기로 같은 해 4월에는 경제구조조정, 내수진작을 골자로 하는 “마에가와 리포트”가 제출됨

다. 기타 요인

- 일본의 경우 투자유치보다는 해외투자가 중심을 이루어 온 관계로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은 아주 미미한 상황
 - 일본이 투자유치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로 '02년을 전후로 투자유치를 통해 장기불황을 극복한다는 정책목표 채택
 - 이를 위해, JETRO를 중심으로 투자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원 스톱 서비스센터를 설치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 구축을 개시
- 특히, 상기에 언급한대로 '85년 플라자합의이후 급격한 엔고현상으로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기업의 생산거점 해외이전 현상 가속

2. 1만불에서 2만불 진입기간('81-'87)중 일본 경제 여건

가. 주요경제 지표

지표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경제성장률(%)	3.0	3.1	2.5	4.1	4.1	3.1	4.8
수출증가율(%)	17.1	-8.7	5.8	15.8	3.2	19.1	9.6
물가상승률(%)	4.9	2.7	1.9	2.2	2.0	0.6	0.1
완전실업율(%)	2.1	2.3	2.6	2.8	2.7	2.8	2.8
인구밀도/km ²	316.3	318.5	320.7	322.7	324.7	326.3	327.9
급여수준(천엔)	279.1	288.7	297.3	310.5	317.1	327.0	335.9
노동쟁의(건)	7,660	7,477	5,562	4,480	4,826	2,002	1,839
조세부담률(%)	22.8	23.1	23.4	23.9	24.0	24.9	26.4
비율 (%)	직접세	70.1	70.8	71.0	71.5	72.8	73.3
	간접세	29.9	29.2	29.0	28.5	27.2	26.7
닛케이평균주가	7,510.73	7,399.36	8,808.71	10,560.61	12,565.62	16,401.83	23,248.06
평균소비성향(%)	79.2	79.3	79.1	78.7	77.5	77.4	76.4
엔겔계수(%)	27.5	26.7	26.5	26.1	25.7	25.5	24.8

자료원 : 일본국세도회

3. 정부전략 및 정책 변화

-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 정부, 기업이 별도의 구체적인 정책,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한 사례는 없음
 - 상기 해당기간을 중심으로 대내외 여건을 감안, 일본 정부, 기업이 취한 일련의 행동 및 전략(소득 2만불 달성과는 무관)을 중심으로 조사

가. 경제 정책

□ 적정수준의 성장 지속 및 잠재능력 함양

- '80년대 경제정책 목표는 지속적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이의 실현을 위한 적정수준의 성장 실현에 정책상 역점 부여
 - '80년대 성장 수준 결정은 고용 확보 등에 필요한 성장률 수준과 에너지공급 등 제약 요인의 향방 등을 고려하여 정책 방향 조정
 - '80년대는 산업구조 개혁을 추진, 국제화를 위한 제반 제도개혁 필요성과 사회적 공정성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
 - 따라서, 低성장 하에서는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한 마찰증대로 이를 원활한 추진 곤란은 물론 국제적 공헌도 불가능해지는 난점 존재

□ 경제안전보장 중시의 경제운영

- 성장의 정도뿐만 아니라 성장의 성과를 어떠한 분야에서 살려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시
- 국민생활을 지키는 경제안전 보장대책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첫째 에너지대책, 연구개발 투자 중시, 둘째 '74년 이후 신규 설비투자침체로 생산설비가 노후화 되고 있음을 감안, 에너지절약, 생산성 향상, 국제분업 대응을 위해 민간설비투자 활성화

- 연구개발, 경제협력 등의 경제안전보장 경비를 GNP의 일정규모 이상으로 설정, 이 같은 비용을 국민 전체가 분담하는데 대한 컨센서스 확보에도 노력
-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주택, 생활환경관련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 물가안정을 지속적 성장의 기본요소의 하나로 인식하고 물가안정에 주력, 이를 위해 유효수요관리정책과 더불어 적절한 설비투자에 의한 생산성향상, 에너지대책 등의 공급여건정비가 '80년대 물가정책의 기본

□ 민간부문 및 정부부문의 기능 및 역할정립, 계층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80년대에도 시장기능을 기반으로 한 민간부문 기능 활성화를 통한 고도산업사회 구현 지속
- 시장기능에만 의존할 수 없는 분야, 예컨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리스크가 크며 소요기간이 큰 기술개발, 국민 안전의 확보, 사회적 공정 실현, 국제거래부문에서 정부간 교섭 등에는 정부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개입
- 국제적 상호의존관계가 더욱 강해지고 국내적으로 가치관의 다양화가 진전되어온 '80년대에는 상호간 의사, 감정의 정확한 전달, 토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특히 일본정부와 외국정부, 국민과 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이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하는 것도 원활한 경제운영을 위한 필수 불가결 요소로 인식하고 노력

나. 산업 정책

- 에너지절약 추진, 경제안전보장의 확립, 국제분업의 진전, 국민수요의 충족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주된 정책목표로 추진
- 이를 위해, '70년대의 지식집약화 성과를 감안, 창의력 발휘를 기조로 한 고차원 지식집약화를 추진

- 즉, 독자적 원천 기술개발을 기초로 소프트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한 기술집약화와 지적 노동집약화를 통해 각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구
- 이를 위해, 비전의 제시, 기술개발 촉진, 금융·세제상 지원 조치 강구, 인재육성을 중심으로 한 산업노동정책 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다각적 조치 강구
- 전자정보기술, 에너지관련기술, 신소재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을 적극 추진, 이를 원동력으로 하여 산업구조의 지식집약화를 산업별로 다각 추진

<주요 산업분야별 정책 내용>

구 분	정책 내용
기초자재산업	- 생산프로세스에 전자정보기술을 활용, 에너지절약 추진 - 또한, 제품 품질, 성능, 신뢰성 등을 제고하여 종합 기술 향상(토털시스템화) - 새로운 니즈에 부응, 고성능, 고기능 신소재, 특수 재료의 개발. 이용을 촉진(스페셜티화)
가공조립산업	- 전자정보기술의 활용으로 각종 기기의 지능화를 추진, 이용기술의 고도화 추진(소프트웨어화) - 다품종제품을 수요변화에 부응, 유연·자동적으로 가공·조립하는 생산방식의 개발·이용(산업구조의 유연화) - 또한 의료·교통 등의 사회적 니즈에 부응, 기계산업과 타산업과의 연계, 異種기술의 복합조합에 의거 새로운 기능을 창조(시스템화)
생활관련산업분야	- 국민의식, 생활양식의 다양한 변화에 부응, 새롭고, 고도의 감각을 상품화 반영(패션화) - 견실한 소비자수요에 부응하여 내구성, 안전성, 에너지 절약형 상품을 개발 - 소재부문과 최종 수요부문간에 신제품 기획, 기술 개발 면에서 유기적인 연계(피드백화)
유통·서비스업	- 새로운 기술, 새로운 경영수법을 도입, 시스템화를 추진, 자본 장비율을 높여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제품간 상호연관성을 심화

- 산업조정정책은 효율성에 입각, 민간부문의 대응노력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운용

- 시장기능을 유지, 경쟁제한의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쟁환경의 정비와 기업행동의 적정화에 주력하는 한편 시장기능이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의 수정·보완을 실시
- 활력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창조성과 개성이 풍부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에 중점을 두는 한편 새로운 시대의 과제에 대처키 위해 중소기업정책체계를 재구축, 정책의 효율성 제고 도모

다. 산업 및 수출구조 변화

- '70년대 후반 오일쇼크, '80년대 중반의 엔고국면을 거치면서 일본은 산업 및 수출구조 공히 변화 초래
 - 산업구조측면에서는 고도성장으로부터 안정 성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프트화, 서비스화 경향이 강해짐으로써 산업구조의 변화를 초래
 - 소득수준 향상, 사회구조의 변화라는 수요측면 요인과, 마이크로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정보처리가 용이해진 공급측면의 요인이 크게 작용
 - 3차 산업 취업자수가 전체의 50%이상을 차지, 2차 산업 취업자 구성비가 감소하고 3차 산업 비중이 상승
 : 3차 산업 취업자 구성비, 60년 38.2%→80년 55.4%
 - 아울러, 저렴한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 수출하는 가공무역으로부터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수출하는 구조로 변화를 하였으며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등이 대표적인 수출품목으로 부상

라. 사회 의식구조의 변화

-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 교육이 발휘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이의 토대 위에서 '80년대에 요구되는 국민의식구조 및 이의 정착을 위한 가치관을 설정, 교육 및 계몽 실시

- 일본은 교육 근대화의 주역을 육성하는데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 특히 기술혁신을 실현한 노동력의 질의 우수성은 전후 급속히 정비, 보급된 교육에 의한 것으로 평가
- '80년대 들어 모방과 추종이 체질화되기 쉬운 문명개화 시대가 종료되고 창조와 선도의 문명개척의 시대가 열리면서 일본문화와 창조적 지식집약화에 입각한 산업문명을 형성, 국민생활을 보호하고 이의 질적 향상을 추진
 - 선례를 학습하는 능력에 더하여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창조성 추구
 - 책임감 있고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주체성
 - 국제사회로부터 이해와 공감을 얻으면서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다하는 국제성 등이 '80년대에 요구되는 자질로 설정하고 국민의식구조를 개혁
- 지식을 집약화 함으로써 '70년대에 제반 혼란을 극복, '80년대에도 지식집약화의 중요성은 불변
 - 그러나, 불확실성 확산이 예상되는 가운데 확실한 역사관 정립을 위해 통찰과 판단력, 그리고 이에 입각한 실행력 요구
 - '80년대에는 이 같은 관점에 입각하여 지식을 살려나가는 시대[活識의時代], 즉 창조적으로 지식을 활용하여 활로를 개척해 나가는 '80년대라는 인식 하에서 필요한 사회의식구조의 변혁을 추구

라.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변화

- '80년대 들어서도 기업은 기본적으로 장기 고용을 유지하고, 해고를 하는 대신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방향에서 시간외 근무시간(잔업시간)의 단축이라는 노동시간 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배치전환, 파견, 일시휴가 등으로 고용조정을 실시

- 일본의 노동조합은 고용을 보장받는 대신 임금인상 요구 억제
 - 춘투에 의한 임금인상률이 저하되고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상승의 곡선을 완만하게 하는데 동의, 이는 노사 합의에 입각한 일본식 소득 정책이라고도 칭해짐
-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범위 내에서 임금인상률이 책정됨으로써 인플레이션 상황하의 임금 코스트 압박요인 제거
- 이 같은 노사관계가 구축됨으로써 '79년-80년의 제2차 석유위기는 비교적 큰 혼란 없이 극복
- '82년에 제 2차 임시행정조사회의 의견서에 의거 실시된 국철, 전전공사, 전매공사의 분할·민영화는 노사관계 면에서 중요한 변화의 계기로 작용
- '85년에 전전공사는 민영화되어 NTT로, 전매공사는 일본담배산업(주)으로, '87년에는 국철이 분할·민영화되어 JR그룹이 됨
- 국철의 분할·민영화는 국철 노동조합, 동력차 노동조합의 배제가 주된 목적이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JR조합은 민간대기업의 노동조합과 거의 동일한 행동을 취하게 됨
- 기업의 노동현장에서 배치 전환, 응원, 잔업 등에 관해 현장 노동자의 발언권이 저하됨. 특히 배치전환의 강화로 OJT방식에 의한 숙련 형성이 목적 의식화하여 多 기능공화가 적극 추구되는 한편, TQC도 기계공업을 필두로 하여 서비스산업으로 보급 확대
- '80년대 일본은 선진경제대국 가운데서는 서독과 함께 노동손실일수가 가장 적은 국가로 비교적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

4. 기업의 전략

- 정부섹터와 마찬가지로 개별기업차원에서 국민소득 1만불을 2만불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별도의 경영전략을 채택하는 등의 움직임은 없었음

- 다만, 1만-2만불로 국민소득이 향상된 기간인 '81-'87년은 오일쇼크, 엔고국면도래 등 일본경제에는 큰 전환점에 해당하는 시기이기도 함
- 이 같은 상황하에서 기업들은 엔고극복을 위해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고,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 지속으로 인한 대외 압력 등을 고려, 수출에서 내수중심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한편, 제조업 부문 내부에서도 소프트화·서비스화를 강력하게 추진

5. 시사점

- 정부 및 기업부문 공히 기본적으로 소득 2만불 달성을 의식한 구체적인 경영목표 또는 정책목표를 수립·시행하는 등의 움직임은 없었던 관계로 직접적인 시사점을 찾기는 어려우나 1만불→2만불 달성까지의 기간에 있었던 정부 및 기업부문의 대응을 중심으로 간접적인 시사점을 찾을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
-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80년대라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전환점에서 한편으로는 위기극복에 주력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창조적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형 산업사회를 추구
 - 에너지문제, 국제경제시스템, 남북문제,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 고령화 사회라는 제반문제 극복과 더불어
 - 선진국(소비 및 제품)을 모방하는 Catch-up경제체질에서 스스로 창조하는 지식집약형 산업사회를 추구함으로써 안정기를 이어간다는 전략을 추구
 - 일본적 경영의 특수성(종신고용, 연공서열, 기업내 노동조합)이라는 점도 부정하기 어려우나 해당 기간중 비교적 원만한 노사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점등 임

캐 나 다

1. 개 황

- 캐나다의 국민소득은 '80년의 U\$10,994에서 '89년의 U\$20,321로 9년간에 걸쳐 2만불대 진입
- 전반적으로 정부지출 확대,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한 무역 수지 및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투자 유치 확대가 GDP 성장의 큰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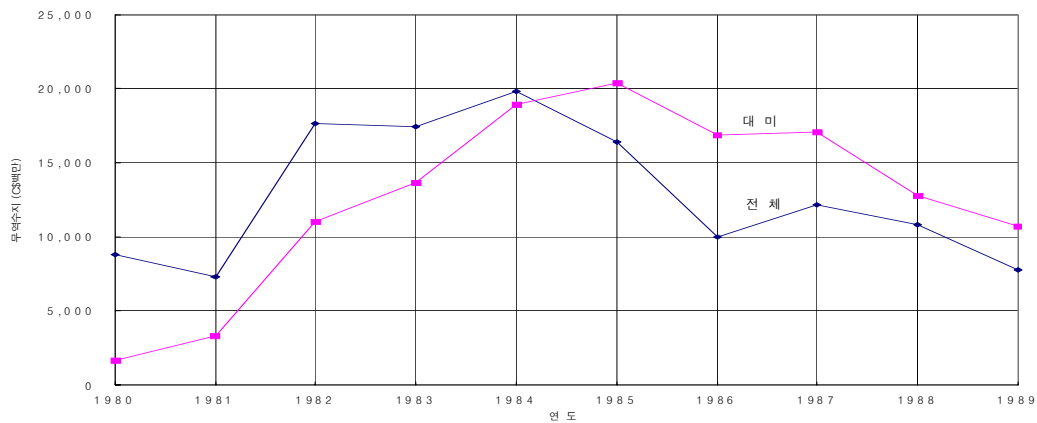
2. 캐나다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촉진 분야

- 무역과 투자가 경제 성장에 큰 역할 담당

□ 무 역

- 관세 인하, 규제 완화 등의 전반적 교역조건 향상으로 전체적인 무역확대
- 반미 성향의 트뤼도 수상에서 친미 성향의 멀루니 수장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대미 무역 대폭 증가
- 자원산업에서 제조 및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으로 고부가가치 품목의 대미 수출 증가
- 제 3국으로부터 원자재 수입 -> 제조 -> 대미 수출의 무역구조가 이 시기에 형성, 대미 무역수지 흑자 동기간 중 10배 가량 증가
 - 전체 무역흑자수지 중 미국 비중은 '80년 19%에 불과했으나 꾸준히 증가해 85년부터는 미국으로부터의 흑자가 기타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적자를 상회. 이후 대미 무역 흑자, 타국 무역 적자 구조 형성
 - '85년에는 대미 무역수지가 GDP의 4% 이상을 차지, 미국이 캐나다 경제 성장에 큰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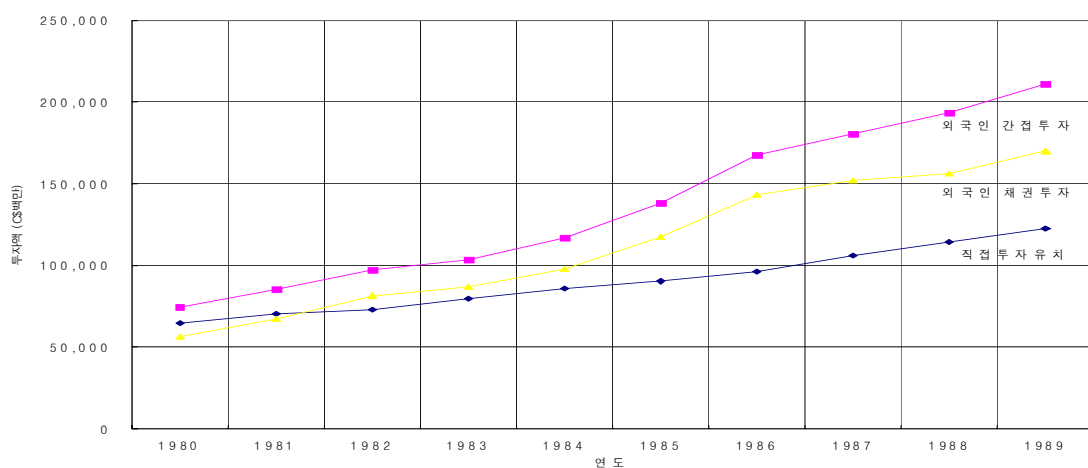
<캐나다의 무역수지>



□ 투 자

- '80년부터 '89년까지 10%대의 높은 금리가 외국인의 금융투자 촉진
- 트뤼도 정권의 극도 사회주의 성향이 멀루니정권에 들어서 완화, 외국 자본의 유입이 활성화
- 대미 관계 정상화에 의한 미국의 직·간접 투자 증대
 - 특히, 정부 지출증대로 부채 급증, 외국 금융기관의 캐나다 정부 채권 구입 증가('80년 56,524백만불에서 '89년 169,943백만불로 200% 이상 증가)

<외국의 캐나다 투자>



3. 국민소득 2만불 달성기간중 캐나다정부 전략 및 정책 변화

가. 경제 정책

- '80년대 캐나다 정부의 경제 정책은 지출 위주의 정책 추진
 - 국채의 급증으로 '90년대초 공황을 초래하였으나, '80년대 GDP 성장에 막대한 역할
 - '80년대 초 트뤼도 수상, 산업보조, 복지제도 등의 사회주의적 정부지출 확대 정책 고수
 - '84년 멀루니 수상 역임, 레이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미국과 흡사한 정부지출 정책 도입

나.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의 변화

- 1차 자원 집약적 산업에서 2차 제조, 나아가 3차 서비스산업으로 전반적인 산업구조 조정
- '60년대 이후 1차 자원산업 의존 탈피가 '80년대에도 꾸준히 지속
 - 펄프, 산림, 수산업 등의 산업이 도태되었으나 우주항공, 자동차, 금융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부각

다. 수출정책 및 교역구조의 변화

- 대미 관계 개선으로 대미 교역 확대, NAFTA의 초석 조성
- 값싼 노동력, 지리적 인근 등을 이용한 미국기업의 캐나다 생산공장 다수 유치, 대미 수출 크게 증가
- 무역장벽을 지속적으로 허물어 교역 위주의 경제 체제 강화
- 수입 관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국제 교역 촉진

<캐나다 평균 관세>

연도	1935	1940	1955	1965	1975	1985
평균관세	17%	13%	10%	8%	6%	4%

라.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의 변화

- 물가상승에 비해 임금 상승 안정세, 결과적으로 미국기업의 캐나다 진출 유도
- '80년대 초까지 캐나다의 임금 수준이 미국 임금수준을 상회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하락해 미국과의 노동비용 격차 발생
 - 미국기업 생산기지 캐나다 대거 진입
- 임금은 감소했으나 근로 환경은 오히려 개선
- '80년대 초 공황 시기('81-'83)에 1일 평균 634명의 실업 발생으로 캐나다 정부 고용시장 안정정책 필요 절감
 -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고용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무릅쓰고 각종 보조정책(실업자 보험, 연금, 의료보험 등) 시행, 건실한 고용시장 조성 및 근로환경 개선에 노력
 - 그 결과, '83-'90년간 1일 평균 661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마. 사회의식구조의 변화

- 석유파동에 이은 '80년대 초 공황 이후, 안정성 추구 사회의식 구조로 전환
- 다소 임금이 낮더라도 안정된 직장을 추구
 - '80년대 물가 상승에 비해 임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이 줄어 기업 성장에 이바지
 - 정부의 지출로 인한 사회보장제도의 강화가 임금 인하를 대신해 고용시장은 건실하게 성장

4. 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캐나다 기업의 전략

- 기술집약형 제품 및 서비스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 봄바르디에, '86년 항공사업 개시, 기술인력 양성 등의 투자를 통해 유수의 항공기 제조사로 성장
 - 봄바르디에는 원래 雪上 주행용 차량 제조회사로 전동차 등의 공공 수송 기계 제조가 주력 분야
 - '80년대 불황에도 정부의 공공사업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비교적 타격을 받지 않았음
 - 이에 만족치 않고 '86년에는 보다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정부로부터 Canadair社를 매입, 항공기 제조 사업 시작
 - 이어 '89년 북아일랜드의 Short Brother社, '90년 미국의 Learjet社를 잇달아 매입, 사업 확장
 - 동시에 토론토대학, 칼튼대학 우주항공공학부에 투자를 증대해 인력자원 개발 노력 (캐나다 우주항공공학 졸업생 대다수가 봄바르디에에 입사)
 - 결과, 봄바르디에는 민간항공기 분야에서 보잉, 에어버스에 이어 세계 3위의 규모로 성장
- 전반적으로 효율성 증대 및 생산성 향상으로 통한 기업체질 개선이 기업생존에 필수임을 자각
- '80년대 초 공황과 이어진 불황을 겪으면서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효율 증대를 통한 기업체질 개선의 필요를 인식
 - 경쟁력 유지를 위해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느껴, 이 시기에 '90년대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 근로여건 개선 등으로 통해 생산성 증대 노력

5. 대 한국 시사점

- 성급한 성과보다는 근본적인 산업, 노동, 경제 구조 개선을 근본으로 하는 경제 fundamental의 개선 필요
- 캐나다의 국민 소득 1만 불에서 2만불 진입기간은 실질적인 성장보다는 버블성의 성장
 - 인플레이션의 의해 경제활동이 부풀려져 나타났음
 - 정부지출의 증가가 생산을 근거로 하지 않고 국채를 얻어 이루어 졌음
 - 따라서, 동기간 경제성장은 실제로 상당히 부정적인 성장
- 다만, '80년대초 공황을 겪은 뒤, 각계의 구조조정 노력이 이어져 보다 건실한 경제체제를 추구, 실질적인 경제성장은 '90년대 후반에 이루어짐
 - 비록, '80년대의 성장이 부풀려진 성장이지만, 동기간 노동/산업/무역/투자 등 분야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향후 경제성장 기반 조성
 - 실제로 '90년대 초, 막대한 재정적자와 NAFTA 체결의 쇼크로 경제가 불황에 진입했으나, '80년대 초의 구조조정으로 '90년대 후반의 건실한 경제성장, 따라서 건전한 성장 기반요건 조성 중요
- 가시적인 수치나 근시안적인 정책보다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경제구조 개선이 필요
 - GDP 수치 자체가 경제활동의 척도로 널리 쓰이기는 하나, 실제 경제구조의 건실함과 별반 상관이 없는 지표이므로 GDP 성장이 경제체질 개선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됨
 - 단기적인 성장을 희생해서라도 산업의 효율 향상과 노동조건 개선으로 경제성장의 기반이 될 요소를 장기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

프 랑 스

1. 국민소득 2만불 달성에 주요 역할을 한 분야

- 해당 기간인 '79년과 '90년 사이의 프랑스 통계를 볼 때 내수-제조, 수출, 투자 중 어느 특정 요소가 경제성장을 주도했다는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움
- 동 기간동안 상기 세 가지 요소가 계속해서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특징적인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음
- 이는 이미 프랑스가 여건이 주어진다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산업 및 경제의 기초(Fundamental)가 탄탄하고 균형이 잘 잡혀 있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1만불에서 2만불 진입기간('79-'90 : 12개년간)중의 경제여건

연도별	단위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GDP	10억\$	598.205	682.447	598.918	566.463	540.18	512.209
GDP 성장률	%	3.2	1.8	1.1	2.5	1.2	1.5
수출 증가율	%	7.5	3.0	3.9	-1.2	3.9	8.1
GDP중수출비중	%	20.1	20.4	21.3	20.8	21.4	23.0
1인당 GDP	US\$	11185.4	12701.1	10805.9	10161.3	9638.9	9096
인플레이	%	10.8	13.1	13.3	12	9.5	7.7
물가지수(기준연도80)	-	N/A	100	113.4	126.8	139	149.3
대 달러연평균환율	프랑	4.254674	4.221238	5.432094	6.572099	7.622398	8.739882
최저인건비	유로	N/A	2.25	2.71	3.09	3.4	3.71
실업률	%	5.8	6.2	7.4	7.7	8.1	9.7
연도별	단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GDP	10억\$	535.673	742.798	901.989	980.434	984.281	1219.85
GDP 성장률	%	1.5	2.3	2.5	4.2	4.2	2.6
수출 증가율	%	2.7	0.6	4.5	9.8	9.9	5.0
GDP중 수출비중	%	22.9	20.3	19.7	20.4	21.7	21.2
1인당 GDP	US\$	9466.4	13062.8	15776.5	17044.3	17009.8	20970.1
인플레이	%	5.8	2.5	3.3	2.7	3.5	3.4
물가지수(기준연도80)	-	158	162.2	167.3	171.8	178	184
대 달러 연평균 환율	프랑	8.989019	6.927901	6.011847	5.959163	6.381505	5.447228
최저인건비	유로	3.97	4.1	4.24	4.38	4.56	4.87
실업률	%	10.1	10.2	10.4	9.8	9.3	9

3. 1만불에서 2만불 달성기간중 프랑스 정부 전략 및 정책변화

- 프랑스의 실질적인 2만불 시대로의 진입은 '86년부터 '90년대 사이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가. 정책 변화

1) '80년대 초반

- 통계에 의하면 '80년대 이미 12,000불 대까지 진입한 일인당 GDP가 '81년을 고비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85년까지 10,000불 미만 수준으로 떨어졌음
- '80년 대 초반은 Mitterrand 대통령의 사회당 정권이 집권 초기에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시행착오를 거듭하던 시기로서 경제 성장 주도로 볼 수 없기 때문임
- '86년-'90년 사이에 매년 GDP 증가율이 2.5%에서 4.5%, 수출증가율이 4.5% 에서 9%대 까지 올랐으며 '86년 일인당 GDP가 13,000불 대에서 매년2,000불 정도씩 상승하면서 '90년에 비로소 20,000불을 상회하였음

2) French Paradox

- 미테랑 정권은 초기(1981- 1982)에 사회주의적 경제정책 (은행 및 기업 국유화, 복지수당 증대 등)을 실시했으나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 및 재정 적자의 급증으로 이어져 프랑화 가치하락, 국제수지 악화 등의 결과를 낳았음
- 이로 인해, 프랑스 정부는 경제가 유럽 및 세계경제와 유리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경제 현대화 계획에 착수하여 좌파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계획경제와 더욱 멀어지게 되는 이른바 French paradox를 낳게 되었음
- ※ '81년 미테랑 정권 초기 : 5개 제조업 그룹, 36개 시중은행,
2개 금융그룹 국유화

3) 계획경제의 포기 및 시장경제로 회기(새로운 경제도약 계기)

- Cohabitation : '86년 우파 시락 총리 취임으로 동거정부 시작
 - 미테랑 대통령 취임후 2- 3년부터 취임당시 사회주의 정책 방향에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서서히 계획경제의 수정 및 시장 경제로의 회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시락 총리 취임후 가속화됨

4. 주요 정책

가. 경제 정책 기조 : 제 9차 경제계획('84-'88)이 근간

- 계획 경제를 거시경제 틀로 사용 포기
- 노동비용 조정을 통한 인플레이션 진정시도
 - 임금 인상폭을 생산성 증가수준에 맞추는 노력
- 투자 수준을 '75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려는 목표 설정
 - 산업기술의 후진상태를 경쟁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
 - 유럽 공동체 참여 및 EMS(유럽 단일통화제도) 참여 적극화

나. 산업 정책

1) 국유화의 재조명 : 1차 민영화('86-'88)

가) 은행을 포함한 14개의 그룹과 50만 명의 근로자가 공기업에서 민영화 기업으로 편입

나) 총 1,250억 프랑(약 190억 유로) 규모의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 여기서 발생한 순이익 약 708억 프랑(약 107억 유로)은 상당수가 공채 환매에 투입되고 일부는 공기업에 자본 형태로 투자

※ 당시 국영기업의 4대 취약점

- 대기업의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교 상대적으로 열악
- 주식자본화의 취약 : 장기저축의 부족

- 주주의 부재: 다른 선진국 대비(증권시장을 통한 매입 불가), 기업 소유 이동의 경직성

2) 산업 구조

가) '81년 미테랑 대통령 취임 직후는 특정분야 중점 산업발전계획에 부정적 입장

※ '81년 미테랑 정권 초기 산업장관 M.J.P. Chevenement :

- 프랑스는 모든 분야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분야도 포기해서는 안됨
- 핵심분야 우선 육성정책보다는 모든 부분을 대상으로 하되 순서에 입각하여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

나) 산업 구조개편에 집중 노력

○ 당시 산업의 특징

- 특화대상 상품의 부족으로 수출산업육성 애로, 모든 산업의 균형발전 추구
- 산업 생산성의 열세

3) 주요 산업별 정책

가) 화학 공업 : 국제화 전략의 강화

- 구조조정, 투자 및 재무구조 건실화로 동 분야의 국내 생산중 수출 비중 향상 : 49.5% ('85) -> 61.2% ('91)

나) 자동차 공업 : '70년대 발전전략 차질로 경쟁력 약화

- 구조조정 및 생산 합리화로 '80년대 말 흑자로 전환

다) 항공 우주산업 : 독일 영국 등과 기술, 자본 등 공동보조로 국제화 실현

라) 통신산업 : 외국기업과 합작을 통한 기술, 자본력 보완으로 국제화 도모

마) 방위산업 : 광학, 기계, 전자 등 각종 방위산업에 집중투자,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군장비 생산 및 수출국가

바) 고속철도차량 등 운반기계 : 세계 초고속 철도차량을 개발, '81년 상용화한 이래 세계 시장 진출 박차

다.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의 변화

○ 노동정책은 실업타개에서 고용창출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고용확대를 경제 계획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 기업의 고용 창출 기반 조성 지원
- 법인세 50%에서 33%로 하향 조정
- 중소기업 육성책 추진
- 기업의 자율성 점진적 확대
- 기업의 근로자 해고권 관련 정부측 권한 점차 축소

라. 수출 주도형의 산업으로 선회

○ 프랑스는 독일이나 영국 등에 비하여 대외 교역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강력한 보호주의 무역을 실시해왔으며 '59년 유럽 공동체 탄생전까지는 소극적인 수출정책 추진

- '80년대 이후 수출 비중 증가 : '92년에는 GDP 대비 수출비중이 영국과 비슷한 23%에 도달, OECD 전체의 9%, 세계 수출의 6% 점유
- 건축자재, 일반 소비재, 자동차 항공기 등 운송 기자재와 샴페인, 농산물 및 가공품, 화장품 등 유명 명품, 방산 제품 등이 주도

마. 해외 투자의 적극화

- '80년도까지 세계전체 투자의 4%로서 200억불 정도에 그치던 해외 투자를 적극화 '86년부터 미국, 일본, 영국, 독일에 이어 5대 해외 투자국으로 세계 해외투자의 6.8% 차지
- '95년에는 GNP중 11.7 %가 해외 투자 기여분

바. 적극적인 시장개방과 외국인 투자의 획기적인 증가

- 해외 투자진출을 강화하면서 프랑스도 '8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자본시장을 개방,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참여
 - '72년도 총 외국인 투자규모가 131억 달러에서 '92년 1,260억 달러로 거의 9배 증가
 - OECD 국가중 가장 자유로운 외국인 투자제도 유지
 - 2002년도 중국 다음으로 해외 투자가 가장 많은 5대국 중 하나

4. 주요 기업의 국제화 전략

가.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사례

- EADS (European Aeronautic Defense and Space Compay) :
 - 프랑스(Aerospatial Matra)독일(DASA) 및 스페인(CASA) 3국간에 설립. 화란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항공, 우주, 방위 세계적인 기업으로 그룹 내에서 Airbus를 포함한 여객기, 군용 비행기 및 미사일, 헬리콥터, 우주항공 관계 산업을 총괄하는 기업으로서 3국간의 합작을 통해 자본, 기술 및 시장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국제화의 대표적 사례

나. 상품의 고부가가치를 통한 세계 시장 석권 사례

- LVMH(Moet Hennessy Louis Button): 포도주, 샴페인 및 코냑 등 주류와, Christian Dior향수나 Guerlain 화장품, Celine, Givency 의류, Tag Heuer, Ebel 시계류 등 각종 명품을 중심으로 연간 약 120억불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대표적인 세계적 그룹으로서 Brand Sales 대표적 사례

다. 세계 시장 세어 확대를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시장 확대

- Carrefour 유통망 : 30개국에 9,600 개의 매장을 보유 연간매출규모 860억 유로의 동 그룹은 Hyper Market, Super Market 및 Discount Stores 등 각종 유통의 세계 제 2의 그룹으로서 시장 세어 확대가 궁극적으로 세계적 그룹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동 그룹의 전략임

- Accor 그룹 : 세계 5위의 호텔 체인그룹으로서 전세계 140개국에 약 4,000개의 호텔을 체인으로 묶어 상호 보완적인 경쟁력 향상, 특히 Sofitel, Novotel을 중심으로 한 고급 체인, Mercure 라는 상표의 중급 호텔 체인망, Ibis, Etap, formule 1. Root 등 저급 호텔 체인망 등 차별화를 통하여 고객의 다양화 및 상호 호환성 확대. 이를 바탕으로 식당, 관광 등 연관 사업으로 확대

라. 전문 분야의 특화를 통한 시장 확대

- Nexans : 과거 Alcatel 그룹에서 분사하여 각종 케이블 분야만 전문으로 생산 판매하는 그룹으로 전세계 28개국에서 생산, 65개국에서 약 43억 유로 매출기업으로서 Winding wire, Submarine Cable, LAN Cable 등에서 세계 제 1을 지향

5. 기 타

가. 사회적인 국제화 분위기 확산

-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한 국제화의 추세를 따라잡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두드러짐
 - 이는 기업측면의 국제화 추세와 정책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프랑스 국민들도 영어나 기타 외국어 습득에 노력을 하는 등 사회 전반의 국제화 추세가 급속 확산되고 있음

나. 사회 개념의 실리 중심 전환

- 특히, 전통적인 사회통념 속에서 이루어졌던 경제활동도 근래 들어 미국식으로 많이 전환되어 실질성과 및 이익에 근거한 판단개념으로 바뀌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업체에 부여하는 인센티브 등도 기존 제도의 적용보다는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고용효과나 실익 중심의 정책적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음

다. 사회적인 낭비, 제도의 경직성타파에 전력 투구

- 현재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 국가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오랫동안 쌓여온 전통 양식과 사회제도의 경직성, 조직이나 단체간의 이기주의 등이 사회전체의 순발력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점임
- 극단적인 사례로 독일이 지난해 연간 무역흑자가 무려 1,200억 유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프랑스도 1%의 경제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점도 같은 맥락임
- 즉, 사회제도 운영의 신축성, 효율성, 각 제도와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되어 있지 않아 나타나는 낭비요소가 실질적으로 더욱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주도산업을 개발하더라도 사회적인 체제의 정비나 유기적인 공동의식과 협력적인 운영체계가 잡혀있지 않을 경우, 궁극적으로는 생산창출 효과보다는 재원의 유출이나 낭비로 전환되어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의 역현상이나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핀란드

1. 핀란드 국민소득 2만불 달성에 주요 역할을 한 분야

- 舊 소련 와해 이후 서구와의 교역확대를 적극 추진하면서 수출을 통해 경제활성화의 돌파구를 찾는 한편, 정보통신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성공

2. 1만불에서 2만불 진입기간 중 핀란드 경제여건

가. 거시경제지표

구 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GDP(십억불)	52,355	51,285	51,608	49,744	51,712	54,531	71,275	89,298	106,264
인 구(백만명)	4.78	4.80	4.83	4.86	4.88	4.90	4.92	4.93	4.95
일인당 GDP(불)1)	10,953	10,684	10,685	10,235	10,597	11,129	14,487	18,113	21,467
일인당 GNP(불)2)	10,936	10,660	10,648	10,223	10,549	11,089	14,428	18,017	21,434
GDP 증가율(%)	5.1	2.1	3.1	2.7	3.4	3.1	2.5	4.2	4.7
외환보유고(백만불)	1,870.2	1,483.7	1,517.5	1,237.7	2,754.3	3,749.9	1,787.1	6,417.5	6,369.2
대미 평균환율	3.7301	4.3153	4.8204	5.5701	6.0100	6.1979	5.0695	4.3956	4.1828
시간당 평균임금 (95=100)	36.2	40.9	45.3	49.7	54.2	58.3	61.9	66.2	71.6
실업률(%)	...	...	...	...	...	5.0	5.4	5.0	4.5
소비자물가(95=100)	46.8	52.4	57.4	62.2	66.6	70.5	72.6	75.5	79.4
해외직접투자(백만불)	737	550	671	754	1,306	1,829	2,342	4,433	5,708
수출(fob, 백만불)	14,070	13,662	12,842	12,172	13,087	13,351	16,291	19,526	22,202
수입(fob, 백만불)	14,752	13,307	12,641	12,025	11,607	12,481	14,587	18,019	21,001

주) 1), 2)는 각각 IMF, 핀란드 자국 통계 기준임

3. 1만불에서 2만불 달성기간중 핀란드의 정부전략 및 정책 변화

가. 위기극복을 위한 과감한 개혁조치

- 위원회 · 전문가 ·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정책을 입안하여 다수가 공감하는 개혁을 적기에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

- 장관급을 통해 공공분야 개혁을 추진하고, 고급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이를 위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

○ 주요 개혁정책

<제 1기>

- 생산성 향상 및 공공서비스 확충, 권력분할, 각 정부부처 강화, 중앙정부기관간 업무분장 명료화
- 국영기업법('87년)을 통해 정부기관을 정부산하 공기업으로 전환하거나 민영화
- '91년부터 경제원리 및 시장원리 지향의 개혁 추진

<제 2기>

- 중앙정부의 권한약화 및 지방정부의 권한강화, 정부보조금 시스템 개혁, 유연하면서도 효과적인 정부역할 강화
- '92년 공공분야 개혁 프로그램 시행
- '93년 중앙 및 지방정부 시스템 및 보조금개혁, 건전재정을 위한 제도 도입

나. IT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발전

○ 정부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활동 지원

- '89년 이후 핀란드 기술청(TEKES)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년 5-7% R&D 지원 예산 증액

○ 산·학·연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 대학과 15개 지역연구센터를 운영하면서 연구 프로젝트의 90%가 지역연구센터에서 이루어짐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정책

- 교육부, 교통통신부, 상공부 등 관련부처간 유기적인 교육정책 수행
- 최근 10년간 IT 및 미디어 관련 학생수가 4배로 증가

- 조기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력 확보
 - '87년 신통신법 제정을 통한 통신 서비스 가격자유화
 - '94년 외국인투자 완전 개방
- IT 산업 클러스터 육성
 - 오울루(Oulu) 지역의 ICT 클러스터가 대표적

다. 산업 및 수출구조의 변화

- 목재·펄프·제지 산업 및 금속·엔지니어링 산업 등 전통적인 산업이 여전히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
 - '90년대부터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핀란드 전체산업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
 - IT산업 매출액의 약 62%가 수출로 이루어짐
- 소련 및 동구와의 교역편중으로 야기되었던 경제불황을 교훈 삼아 서유럽 및 아시아 등지로 수출대상국 확대에도 주력

라. 노동정책

- '80~'90년대 초까지의 심각한 경제위기 당시 핀란드의 노사정은 3년간 임금 동결을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문제의 해결을 시도
- 실업률 급상승과 기업부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은 건실한 복지국가로서 실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했기 때문
- 이로 인해, 정부의 노동정책에 신뢰를 보여 사회안정 및 노사간의 신뢰를 구축

호 주

1. 호주의 국민소득 2만불 달성에 주요역할을 한 분야

-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 1만불에서 2만불 진입기간 중 호주의 경제여건

가. 경제 정책

-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한 '83년 이전까지 경기는 장기침체에 빠졌으며 늘어난 실업으로 어려운 시기
 - '83년 Bob Hawke 집권부터 Paul Keating 집권(1991-1996) 기간중 재도약을 위한 정책이 추진
 - 전반적으로 '70~'80년대의 호주 경제의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침체기
- '80년대 및 '90년대의 경제정책은 호주 제품의 국제경쟁력 확보,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 생산기반 확대, 우호적인 외국인투자 환경의 조성 등이었고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은 없었음
- 고소득층의 누진세율을 확대와 개인소득세율 인하를 통해 부의 공평분배와 함께 소비수요를 증대시켜 내수확대 정책도 추진
- Economic Planning Advisory Council을 설치하여 일관되고, 장기 경제정책을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
-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입관세율 및 수입규제 완화 등 시장 개방 정책을 추진

나. 산업 정책

- 농축산 및 광산업의 비중을 축소하고 제조업의 GDP 비중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
 - 농축산 등 1차 산업이 수출 비중이 매우 높아 교역조건의 지속적 악화 원인이 되었고, 전세계 경기동향에 호주 경제가 너무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임
- 일부 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이 있었는데 대상분야는 ICT(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관광산업, 주택건설에 초점이 맞추어졌음
- 자동차 등 주요 수출산업과 항공·우주·통신·생명·환경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및 보조금 지급 등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도 도입
- 관광산업은 내수진작의 일환으로 내국인 관광객을 위해 “Snowy Mountain Scheme”을 통해 호주 동남부의 눈이 내리는 3개의 산을 개발, 스키 등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등을 추진
- 경제개발을 위한 외국 투자유치 확대 및 첨단기술 부문의 해외진출을 위한 다국적 기업과의 협력강화를 모색

다. 산업 및 수출구조의 변화

- 전통적으로 호주는 농산물 및 광산물의 수출국이었음.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채취 광물의 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의 경제구조를 변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80~'90년대 사이에 1차 산업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 1차 산업보다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제조업 수출을 주도한 것은 와인, 승용차, 기계 및 장비 등

산업별 수출 증가율

산 업 별	수출 증가율(%)
제조업	12.4
서비스업	7.5
자원채취산업(광물)	6.4
농산물	3.4

품목별 수출 구성비

구 분	1979~1980(%)	2001~2002(%)	증감(%P)
농산물	37	19	-18
광물 채취	33	33	-
제조업	14	23	9
서비스업	14	20	6
기 타	2	5	3

- 자원 채취산업의 수출비중은 '80년도에는 80%이었으나 2000년에도 60%를 유지
 - 향후 15년 동안 50% 정도로 낮추더라도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
- 1970~2000년까지 평균적인 수출량의 증가율은 5.3%
 - 금액으로 볼 때 '70~'71년대에는 14% 정도 증가했으나 '01~'02년에는 21%의 증가율을 시현
 - 이 같은 수출 증가는 80년대 초반의 금융시장의 자유화, 호주 달러화에 대한 자유변동환율제 도입 등이 기여

라.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의 변화

- 노동시장에 관한 개혁은 '90년부터 각종 제도가 도입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기 시작
 - 그러나, 호주는 선진국에 비해서도 아직까지는 높은 노동시간을 유지하고 있는데 OECD 국가중 한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긴 노동시간을 갖고 있음.

- 정부 예산으로 실업자들의 교육·훈련비용을 지원
 - 또한, 고용주들에게도 미숙련 인력 고용시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채택
- 연간 1%씩의 이민자 확대 정책을 통해 고임금에 따른 산업경쟁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이민정책 추진
 - 이민자들이 낮은 급여를 감수하고라도 Entry-Level 직업을 얻기 때문에 이 분야의 산업에서는 노사분규의 발생소지가 매우 낮아졌음
- 노동인력의 학력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교육훈련에 관한 인식이 높아졌음

마. 사회의식구조의 변화

- 여성을 차별 없이 경제활동인구로 인식하면서 차별적 요인제거를 위한 제도 도입
 - “Maternity Allowance”의 도입을 통해 출산여성에 양육비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Sex Discrimination Act” 제정을 통해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남녀간의 급여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
-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인식이 제고되었음. TAFE 라는 일종의 Community College를 설립하여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교육기회가 없었던 국민, 이민자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또한, 공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향상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반 조성
- 스웨덴식 사회주의 모델을 목표로 한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본격 도입되면서 의료 및 복지에 관한 관심 제고

- “국민의료보험(Medicare)”, “Social Service”, “Legal Aid” 등의 제도를 통해 의료 서비스 및 복리 향상, 빈민에 대한 법률 보호장치 등 마련
- 호주 대륙의 원주민이 소유했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 이후 사회적 갈등 요인이었던 원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 계기

4. 2만불 달성을 위한 주재국 기업의 기업 전략

- 2003년 현재 호주 기업중 Fortune지의 500대 기업에 포함되는 기업은 5개사
 - BHP(광물채취), NAB(은행), News Corp(유통업), Coles Myer(유통업), Telstra(국영통신)로서 국민소득이 배가되는 기간 중에 특별히 등장한 업체는 아님
 - 이들 업체들도 주로 기간산업 또는 정부 지분이 많은 회사로서 호주경제를 극적으로 고도화시키는데 기여했다고는 할 수 없음
- 한편, 호주 금융산업에서 이자율을 낮추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한 Aussie Home Loan사는 짧은 기간에 금융업계에 큰 영향을 준 업체로 인정받고 있음
 - 주택담보부로 주택자금을 융자해주는 회사로 '92년 설립
 - 당시 은행의 대출이자율 18% 보다 낮은 이자율을 도입
 - 대출 이자율을 낮게 하여 마진을 줄이는 대신 대출금액을 늘려서 호주 금융업계의 지각변동을 유발
 -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경쟁관계의 다른 은행의 대출이자율도 낮추기 시작하여 전반적인 저 이자율 시대의 개막을 유도

홍콩

1. 홍콩의 국민소득 2만불 달성에 주요 역할을 한 분야

□ 교역·금융서비스 증가로 소득증가 유발

- '88년 무역규모가 U\$1,271억에서 2만불을 돌파한 '94년에는 U\$3,133억으로 약 2.5배가 증가
- '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중국의 개방정책으로 선진화된 홍콩시스템과 금융서비스 산업확대 및 지리적 강점으로 세계기업의 중국진출 사업지원 확대로 수익증대
- 세계 경제의 호황기로 홍콩의 주요 무역대상국인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교역확대가 교역량 및 GDP 성장에 크게 기여

2. 1만불에서 2만불 진입기간 중 홍콩의 경제여건

□ 거시경제지표

주요 지표	'88	'89	'90	'91	'92	'93	'94
경제성장률(%)	8.0	2.6	3.7	5.6	6.6	6.3	5.5
무역증가율(%)	31.20	14.26	13.16	20.47	21.71	12.69	14.25
물가상승률(%)	7.8	10.3	10.2	11.6	9.6	8.8	8.8
평균환율(HK\$/U\$)	7.806	7.800	7.789	7.771	7.741	7.736	7.728

□ 기타 지표

주요 지표	'88	'89	'90	'91	'92	'93	'94
인구밀도(명/km ²)	5,125	5,179	5,195	5,241	5,293	5,391	5,520
무역의존도(%)	14.90	14.60	15.30	16.20	16.40	17.70	17.20
평균연봉(U\$)	10,201	11,123	11,684	12,155	12,633	13,221	13,778
급여인상률(%)	7.95	8.95	4.90	3.79	3.53	4.59	4.10
실업률(%)	1.4	1.1	1.3	1.8	2.0	2.0	1.9

3. 2만불 달성 기간중 주재국 주요전략 및 정책변화

□ 정부의 주요전략 및 정책

- 부동산가격의 상승유도 및 증시부양으로 국부증가
- 낮은 세금으로 주변국과의 경쟁우위 확보
- 무관세 및 자유경쟁(가격/시장 유연성)으로 기업환경 개선
- 중소기업육성정책으로 기업활동기회 확대 및 일자리 창출
- 환율정책(PEG)과 금융선진화로 서비스산업 성장
- 부동산 재개발 및 공공건물 신축 등 부동산 경기 부양
- 투명한 정부재정의 계획 및 효과적 집행
 - 간편하고 안정적인 저율의 세제정책 유지
 - GDP 성장에 따른 소비지출 적정성 유지
 - 주요 인프라구축에 정부재정의 적극적 제공
 - 충분한 정부의 상시보유 재정의 확보

□ 기업의 주요전략 및 정책

- 정부의 고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부동산(Real Estate)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투자수익 증가
- 미국, 영국, 독일자본으로 홍콩소재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의 확대 및 투자대상의 다양화

4. 우리 나라에 대한 시사점

- 홍콩은 정부 및 기업들의 투명하고 경쟁적 사회건설 원칙 하에 국가의 기본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함으로써 범세계적 경쟁력 확보
- 홍콩의 국민소득 2만불 달성에는 서구의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시스템이 사회전반에 구축되었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국가의 기본제도가 확립됨

- 투명하면서도 낮은 세제, 무관세 정책, 각종 규제의 철폐
- 정치적 안정으로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페그(PEG)제를 통한 환 위험의 감소와 금융자유화로 금융업의 급속한 발전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견지함으로써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유연하게 운영,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본과 기업의 자연적 유입을 유도

□ 국가의 주요 성장동력을 중계무역 활성화로 설정, 자원부족과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

- 국민소득 1만 불에서 2만 불에 이르기까지 교역규모가 2.5배로 성장,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규모의 확대를 가져옴

- 부존자원의 부족과 내수시장의 한계가 있는 아국의 경우에도 국제교역 규모의 확대가 필요

□ 결론적으로, 홍콩의 경우에는 중국의 개방추진에 따른 수요 확대, 세계 경제 호황 등 지리적·시기적 외부요인에 긴밀히 대응한 결과인 바, 아국의 경우에도 주변국 경제여건 변화에 비교우위로 참여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즉, 기업활동이 투명하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여건 조성이 필요함